

「聖學十圖」 및 同筍子 序*

序 論

聖學이란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하나는 「聖人」을 배우는 학문이란 뜻이요 하나는 「聖王」을 배우는 학문이란 뜻이다. 전자의 의미로서는 聖學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지만 후자의 의미로서는 특히 帝王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라 하겠다. 「聖王」이란 聖人の 德을 갖춘 王者를 뜻하는 말이니 개념상으로는 「聖人の 學」과 「聖王의 學」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聖人の 德을 갖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인이나 帝王이나를 불문하고 학문의 목적이나 방법에 있어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聖王의 學이라 해서 별개의 학문을 하는 것은 아니다.

聖學十圖는 퇴계가 새로 등극한 17세되는 宣祖에게 올리는 그림이므로 여기 말하는 聖學은 聖王되는 학문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宣祖에게 올리는 戊辰六條疏의 제3조에서 퇴계는 「敦聖學以立治本」—聖學을 돈독히 하여 정치의 근본을 세우라—고 陳言한 일이 있었다. 이 聖學十圖를 製進하는 뜻은 그 六條疏의 疏意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제3조에서 그는 聖學—즉 帝王學—의 意義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臣은 듣자오니 帝王學은 그 心法의 要가 舜이 禹에게 命한 말에 연원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란 「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입니다. 대저 天下로써 서로 전수함에 있어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편안하게 하고져 함이니 그 부탁하는 말이 정치에서 더 급한 것

* 李相殷 註解, 『退溪學報』 제2호(1974) 게재논문

이 없을 터인데 舜이 禹에게 丁寧히 告戒하는 말이 이 몇 마디에 불과하니 이 어찌 學問·成德으로써 정치의 大本을 삼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精一執中」은 爲學의 大法입니다. 大法으로써 大本을 세우면 천하의 정치는 다 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允執厥中·」 16字는 書經·大禹謨篇에 실려 있는 말인데 朱子が 中庸章句序文에서 이것을 「堯舜禹相傳之心法」이라 하여 특별히 표창하여 그 意義를 강조한 이후로부터 이 16字의 글은 道學의 중심과제로 되어 왔던 것이다. 이제 퇴계가 이것을 宣祖에게 정치의 大本을 세우는 학문이라고 해서 進言하는 것도 道學의 이러한 전통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그는 생각하기를 人主가 학문으로써 德을 이루어 놓으면 그것이 爲治의 大本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儒學의 덕치주의사상에 근거한 말이다. 孔子는 「정치를 하되 德으로써 하면 마치 북극성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못 별들이 그리로 향해 도는 것과 같다.」[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衆星共之.]라 하였고 또 「法으로써 인도하고 형벌로써 가지런히 하면 백성들은 죄를 벗어날 뿐이요 부끄러움이 없으며, 德으로써 인도하고 禮로써 가지런히 하면 부끄러움이 있고 또 스스로 발라진다.」[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라고 하였다.

퇴계가 聖學十圖를 꾸민 것은 모두 君主로 하여금 爲治의 大本인 德을 세우게 하기 爲해서 꾸민 것이다. 이 德은 바로 大學의 「明明德」의 德이요 太極圖說의 「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立人極」이라 한 人極으로서의 德이며 西銘에 말한 「聖其合德」의 德이며 仁設圖에서 말한 「天地生物之心」으로서의 仁의 德이며 心學圖에서 말한 「良心」「本心」「赤子心」「大人心」「道心」을 뜻하는 德이며, 心統性情圖에서 말한 本然之性の 發인 「四端」의 德이다. 이 德을 어떻게 올바르게 認識하고 어떻게 일상생활—「人倫日用」에 있어서 體得·實踐하며 어떻게 「一日萬幾」의 帝王의 자리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정치에 구현시키는가 하는 구체적 방법·절차를 말할 것이 小學圖, 白鹿洞規圖, 敬齋箴圖, 夙興夜寐箴圖의 내용이다.

十圖의 圖說의 글은 비록 여러 先儒들의 글 속에서 채택한 것이지만 그것을 취사선택하는 안목과 또 그것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철학적 구성을 이루어 놓은 것은 퇴계의 道學·理學에 대한 학문적 깊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깊이를 탄복하여 중국의 학자 梁啓超는 聖學十圖替詩를 지어 퇴계를 「德 높으신 李夫子」〔巍巍李夫子〕라 부르고 「十圖는 理學의 비결을 전하고 百世의 人心에 타이른다」〔十圖傳理訣·百世詔人心〕이라고 했고 「聲聞·教化가 300년이 되는 이때 萬國이 다 같이 欽仰한다」,〔聲教三百載·萬國乃同欽〕이라고 稱頌했던 것이다.

현대는 법치주의 시대다. 법치주의는 정치와 윤리를 분리하여 윤리보다는 法制의 형식적 정비와 실행의 기술적 항목의 설정에 치중하고 법 집행자의 개인적 인격·덕행의 수련과 道義的 자각·實踐같은 것은 不問에 부쳐왔다. 여기에 現代文化의 危機가 潛伏되어 있다. 儒敎의 政治文化의 精神은 法治를 補助手段으로 삼고 德治를 根本目的으로 삼는다. 帝王學으로서의 心學은 이런 意味에서 現代文化의 危機를 克服할 수 있는 가장 核心되는 方法的 課題의 하나로서 現代人에게 注意를 喚起시키고 있다. 退溪의 聖學十圖는 이런 意味에서 아직도 그 存在意義를 잃지 않고 있는 것 같다.

退溪의 「進聖學十圖筭」譯文

判中樞府事 臣 李滉은 삼가 再拜하여 말씀 올립니다. 었디어서 생각하옵기를 道는 形象이 없고 天은 말이 없습니다. 河圖·洛書가 나오므로부터 聖人이 그것에 因하여 卦爻를 지으니 道가 비로소 天下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道는 넓고 넓으니 어데서 着手할 것이며 古訓은 千萬가지니 어데로부터 들어갈 것입니까? 聖學은 큰 端緒가 있고 心法은 지극한 要領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보이고 解說로 가리켜 사람에게 入道의 門과 積德의 基를 보여 주는 것은 이 또한 後賢들의 不

得已한 일입니다. 하물며 人主의 一心은 萬機가 말미암는 바요 百責이 모이는 곳이요 衆欲이 互攻하고 群邪가 번갈아 鑽進하는 곳입니다. 한번 怠忽해지고 放縱이 繼續하면 山이 무너지고 바다가 번지는 것 같아서 같아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옛적 聖帝·明王들은 이것을 걱정하여 兢兢業業하며 小心·畏愼하기를 날마다 날마다 해도 오히려 不足하다 해서 師傅의 官을 세우고 諫諍의 職을 베풀어 앞에는 「疑」를, 뒤에는 「丞」을, 左에는 「輔」를 右에는 「弼」을 두고,²⁾ 수레를 탈 때는 旅賁³⁾의 規가 있고 朝會를 받을 때는 官師⁴⁾의 典이 있고 几에 기댈 때는 訓誦⁵⁾의 諫이 있고 寢室에 들면 摯御⁶⁾의 箴이 있고 事に 臨해서는 瞽史⁷⁾의 導가 있고 宴居에는 工師의 誦⁸⁾이 있고 심지어 盤盂·几杖·刀劍·戶牖 等 무릇 눈이 보고 몸이 處하는 곳에는 어데나 銘이 있고 戒가 있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維持하고 몸을 防範하는 것이 이토록 지극하였습니다. 그래서 德이 날로 새로워지고 業이 날로 넓어지어 티끌만한 허물도 없고 그 反對로 크고 높은 名聲이 남았습니다. 後世의 人主로서 天命을 받아 天位에 올랐으면 그 責任이 얼마나 至重·至大한 것인데 써 自治하는 道具는 하나도 이와 같이 嚴한 것이 없으니 그 王公들과 億兆 백성들이 떠 받드는 자리에서 편안히 스스로 聖人인 체 하고 傲然히 스스로 放肆하여 마침내 壞亂·殄滅에 이르게 됨이 조금도 怪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있어서 人臣된 사람으

2) 모두 고대의 관명이다. 天子의 前·後·左·右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政事를 도와 드리는 벼슬. 禮記集解에 「古者·天子必有四隣: 前曰疑·後曰丞·左曰輔·右曰弼·」이라고 있다.

3) 周代의 官名. 창과 방패를 가지고 天子·諸侯의 行次때 곁에서 護衛하는 職責. 國語·魯語에 「天子有虎賁·習武訓也·諸侯有旅賁·禦災害也·」라고 있다.

4) 「官師」=未詳

5) 「訓誦」=出典있는 特殊用語 같은데 未詳.

6) 摯御=音은 「설어」, 임금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侍臣.

7) 瞽史·工師=盲人의 樂師·史·大史를 瞽史라 하고 匠人의 우두머리를 工師라 한다. 漢書賈誼傳에 「瞽史誦侍·工師諫箴·」이라고 있다. 瞽史·工師는 모두 一種의 官職名이다.

8) 工師之誦=前項參照

로써 임금의 끝을 道에 引導하려는 者는 진실로 그 마음을 百方으로 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張九齡이 金鑑錄⁹⁾을 바친 것이나, 宋璟이 無逸圖¹⁰⁾를 드린 것이나, 李德裕가 丹扈六箴¹¹⁾을 드린 것이나, 眞德秀가 關風七月圖¹²⁾를 올린 것같은 것이 모두 그 愛君·憂國하는 懇切한 哀情과 「陳善·納誨」¹³⁾하는 지극한 誠意때문이니 人君으로서 깊이 생각하고 敬服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臣은 지극히 어리석고 固陋한 몸으로써 여러 朝代에 걸쳐 베풀어 주신 國恩을 등지고 田里에 病廢되어 草木과 더불어 같이 썩고 있었사운데 뜻밖에 빈 이름이 잘못 傳해지어 講筵의 重任으로 부르시니 惶恐하옵기 짝이 없고 辭避할래도 길이 없나이다. 君王의 理想에 이르기를 期함은 비록 사양하려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
- 9) 張九齡의 金鑑錄=唐 玄宗때 張九齡은 임금께 金鑑錄(金鏡錄이라고도 함)을 지어 올려 忠諫의 말을 알리었다. 唐書·張九齡傳에 「時·天長節·百寮上壽·多獻珍異·唯九齡進金鏡錄五卷·言前古興廢之道·上賞異之」라고 있다.
- 10) 宋璟의 無逸圖=宋璟은 退溪文集考證에 宋廣平이라고만 하고 어느 임금때 사람인지 밝히지 않았다. 無逸圖를 그려서 임금께 올렸다는 것인데 「無逸」은 書經의 篇名이다. 周成王이 政事를 맡기 시작하더니 周公이 그 逸樂을 警戒하여 無逸篇을 지어서 訓戒하였다고 한다. 無逸의 內容은 農事의 어려움을 말하고 勤勉을 勸獎한 것이다.
- 11) 丹扈六箴=『唐書』·李德裕傳에 「때에 帝(敬宗)가 昏荒하여 遊興의 놀이를 자조하고 羣小를 가까이 하고 朝廷政事를 簡忽히 함으로써 德裕가 빨간색 屏風에다가 여섯가지 箴言을 써서 올렸는데 그 첫째는 「宵衣」라 하는 것인데 朝會를 늦게 보는 것을 諷諫한 것이요, 둘째는 「正服」이라 하는데 服御가 法度에 맞지 않는 것을 諷諫한 것이요, 셋째는 「罷獻」이라고 하는데 怪異하고 珍貴한 物品을 거둬 들이는 것을 諷諫한 것이요, 넷째는 「納誨」라 하는데 忠言을 悔辱하고 拒絕하는 것을 풍간한 것이요, 다섯째는 「辨邪」라 하는데 羣小雜輩를 信任하는 것을 諷諫한 것이요, 여섯째는 「防微」라 하는데 僞裝하고 遊嬉하며 함부로 나 돌아 다니는 것을 諷諫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丹扈(단의)는 붉은 병풍이란 말이다.
- 12) 關風七月圖=『詩經』·國風 가운데 周公의 作이라고 하는 關風七月篇이 있다. 節儉·誠實·勤勉을 읊어 노래한 詩다. 이것을 眞德秀가 그림으로 그려서 임금께 올렸다.
- 13) 陳善·納誨=善한 일을 陳言하고 가르침을 말해 올린다.
- 14) 宸德=임금의 德

만 臣의 學術이 荒疎하고 言辯이 拙訥한데다가 賤疾이 끊임없이 入侍를 자주 못하고 冬寒以來로는 거의 全廢에 이르렀사오니 臣의 罪는 萬死에 當하오와 근심과 두려움을 禁치 못하나이다. 臣은 옳디어 생각하옵건대 當初에 글월을 올려 學問을 論한 말이 天意를 感發시키지 못했고 그 뒤에 召對에 나아가 자주 드린 말씀도 睿猷를 沃贊¹⁵⁾하지 못하였사오니 微微한 臣의 간절한 생각으로 어찌 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오직 옛 賢人·君子가 聖學을 밝히고 心法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고 圖說을 지어 사람에게 入道의 門과 積德의 基를 보여준 것이 世上에 傳해지어 해와 별 같이 昭然하오므로, 이에 敢히 이것으로써 左右에 올려 받쳐 써 옛 帝王들의 「工誦·器銘」¹⁶⁾의 遺意에 대신 하고저 하오니 或 既往의 것에 借重하여 將來에 有益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것 일곱 가지를 골라 얻었습니다. 그 中 「心統性情」은 程氏圖에 因하여 臣이 만든 두 개의 小圖를 붙였고, 그 나머지 셋은 비록 臣이 그림은 만들었사오나 글과 뜻은 前賢들이 이미 著述하여 條目·規劃이 세워진 것이요 臣이 創造한 것은 아닙니다. 승하여 聖學十圖를 만들고 그림마다 밑에 愚見을 붙여서 삼가 淨寫하여 사람에게 맡겨 올리나이다. 그런데 臣이 病中の 몸으로 自手로서 이 일을 하니 눈이 어둡고 손이 떨리어 글씨가 단정치 못하고 글 줄과 글자가 모두 准式이 없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물리치지 않으시면 이 原本을 經筵司에 보내어 詳細히 討論을 加하고 差舛을 改補하도록 하고, 다시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 正本을 精寫하여 經筵司에 보내어 屏風을 하나 만들어 淸燕¹⁷⁾한 處所에 屏列하거나 따로 조그맣고 粧貼을 꾸며 几案에 올려 놓고 「俯仰·顧眄」¹⁸⁾하는 사이에 觀省·警戒하는 바 있도록 하시면 區區한 忠誠의 뜻이 이에서 더 다행한 일이 없겠나이다. 그런데 그 意義가

15) 沃贊睿猷=임금의 꾀하는 일을 啓發하여 協贊한다.

16) 工誦=(7)項의 「工師之誦」을 줄인 말. 器銘=그릇에 글을 새겨 戒銘으로 삼는 것.

17) 淸燕之所=淸閒한 處所

18) 俯仰=굽어 보고 우러러 보고. 顧眄=左右로 돌아보고 하는 것.

未盡한 바 있어 이에 다시 말씀 드립니다. 일찍 듣자오니 孟子는 말하기를 「心の 官은 생각한다. 생각하면 얻고 생각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하였고, 箕子가 武王을 爲하여 洪範을 陳述할 때에 또 「思를 睿라 하고 睿하면 聖을 作한다」¹⁹⁾고 하였습니다. 대저 心은 方寸에 갖추어 있으면서 至虛·至靈한 것이요, 理는 圖書에 나타나 있으면서 至顯·至實한 것입니다. 至虛·至靈한 心으로써 至顯·至實한 理를 求하니 마땅히 얻지 못할 것이 없을 터인 즉, 생각하여 얻고 睿하여 聖을 作함이 어찌 오늘 이라고 그런 微驗을 못가질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心의 虛靈도 만약 主宰함이 없으면 일이 目前에 當해 와도 생각하지 못하고 理의 顯實도 만약 照管함이 없으면 눈으로 날마다 接하고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으로 因하여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소홀히 해서 안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듣자오니 孔子는 「배우고 생각지 아니하면 어둡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하다」고 하였습니다. 學이란 것은 그 일을 익히어 참으로 實踐하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대개 聖門의 學은 心에 求하지 않으면 어두워 얻는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생각하여 써 그 微에 通해야 하고 그 일을 익히지 아니하면 위태하여 不安하므로 반드시 배워서 그 實을 踐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思와 學이 서로 發明하고 서로 利益되는 것입니다. 願컨데 聖明께서는 이 理致를 깊이 洞燭하시어 먼저 뜻을 세워 「舜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 된다」 하는 생각으로 奮然히 學問과 생각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敬을 지키는 것은 또 思와 學을 兼하고 動과 靜을 貫하고 內와 外를 습하고 顯과 微를 一로 하는 方道입니다. 그것을 하는 方法은 반드시 이 마음을 齊莊靜一 한 속에 두고 이 理致를 學問思辨하는 사이에 窮究하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데서 戒懼함을 더욱 嚴하게 하고 더욱 恭敬스럽게 하며 隱微·幽獨한 곳에서 省察함을 더욱 精하게 하고 더욱 密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그림에 就하여 생각하면 마땅히 그 그림에 專

19) 書經·洪範에 「思曰睿·睿作聖」이라고 있다. 註에 「睿者·通乎微也·聖者·無不通也。」라고 풀이하였다.

一하여 다른 그림이 있는 줄을 모르는 것 같이 하고 한 일에 就하여 익히면 마땅히 그 일에 專一하여 다른 일이 있는 줄을 모르는 것 같이 하여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늘 그러하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 或은 夜氣가 淸明한 때에 紬繹²⁰⁾·玩味해 보고 或은 日用酬酌할 때에 體驗·栽培하면 처음엔 마음대로 안되고 矛盾되는 일도 있으며 때로는 極히 辛苦스럽고 快足하지 못한 病痛을 免치 못하지만 이것도 古人의 이른바 「장차 크게 나아 갈 幾微」이니 또한 좋은 消息의 端緒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自沮되어서는 안됩니다. 더욱 마땅히 自信을 가지고 努力을 더하여 참된 工夫를 오래 쌓게 되면 自然히 마음과 理致가 서로 融納하여 不知不識中에 融會貫通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習」과 일이 서로 익숙해져서 차츰 모든 것이 順坦하고 自然스럽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엔 각각 그 하나를 專攻하였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가 하나로 모여 화합하게 될 것이니 이는 實로 孟子의 이른바 「深造自得」²¹⁾의 경지이며 살아서는 그만 둘 수 없는 徵驗입니다. 또 이것에 따라서 부지런히 힘써 나의 才를 다하면 顏子의 仁을 어기지 않는 마음과 나라를 爲하는 事業이 다 그 속에 있게 될 것이며 曾子의 一貫된 忠怒와 傳道의 責任이 그 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日用속에서 敬畏를 떠나지 않으면 「中和·位育」²²⁾의 功을 이룰 수 있고 德行이 彝倫에 벗어 나지 않으면 天人合一의 妙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 그림과 圖說은 겨우 열幅 紙上에 적어 놓은데 不過하고 생각하고 익히는 工夫는 다만 平日 燕處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지만 道를 깨달아 聖人되는 要領과 근본을 바로 잡아 政治를 經綸하는 근원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

20) 紬繹=실 뭉태기에서 실마리를 찾아 뽑아 냄. 轉하여 복잡한 問題에 對하여 그것을 解決하기 爲해서 어떠한 端緒를 찾아 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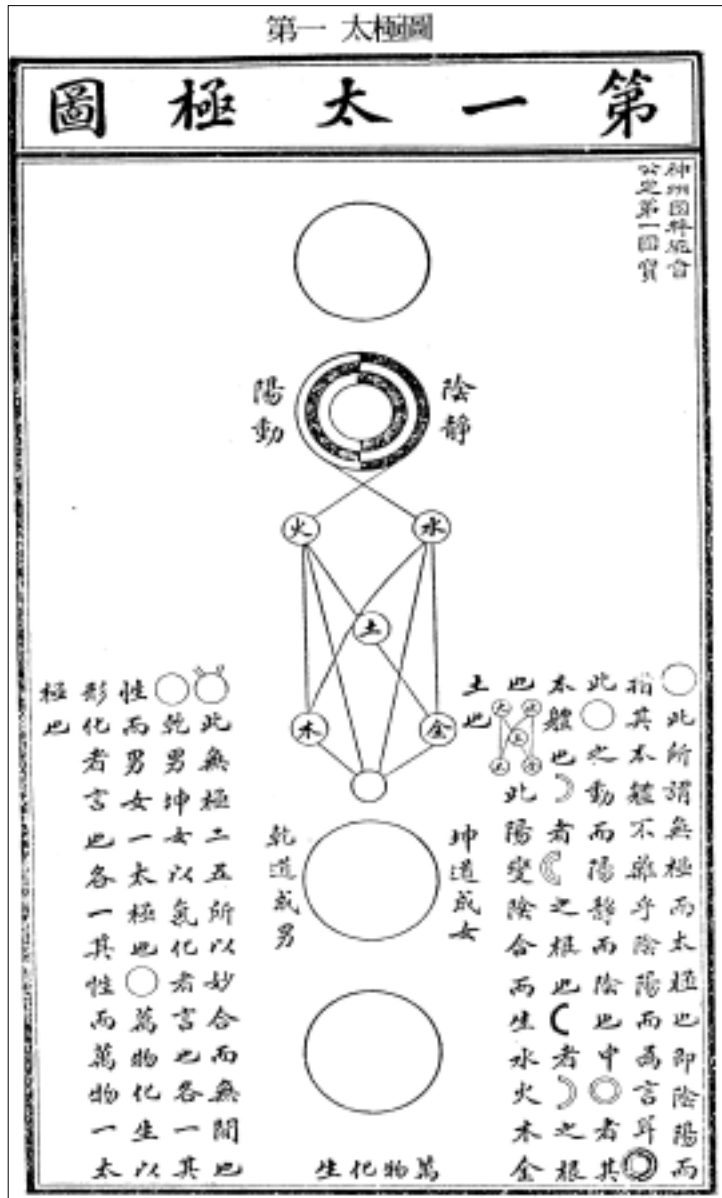
玩味=吟味한다. 뜻을 잘 생각해 본다.

21) 孟子·離婁章下에 「孟子曰: 君子深造之以道·欲其自得之也。」라고 있다. 「深造」는 「깊이 나아간다」, 「造詣를 깊게 한다」는 말이고 「自得」은 「自己로서 얻는다」는 말인데 學問이 익숙해져서 自己의 것으로 되면 거기로부터 根據가 생기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推類·旁通할 수 있게 된다.

22) 中和·位育=中庸의 「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이란 뜻을 가리킨 것.

있습니다. 오직 上께서 깊이 살피시고 특별히 留意하시어 始終 끊임없이 反復해 보시고 輕微한 일이라 해서 疎忽히 하거나 煩雜하다 해서 버려 두는 일이 없으시면 宗社의 幸이요 臣民의 幸이 되겠습니다. 野人의 區區한 獻芹의 정성으로 至嚴을 번거롭힘을 무릅쓰고 이를 받쳐 올리오니 惶恐할 뿐이옵나이다.

[太極圖說原文](句讀點은 譯者가 찍은 것)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六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萬物化生. 萬物生生, 而變化無窮焉. 惟人也, 得其秀而最靈. 形既生矣, 神發知矣. 五性感動, 而善惡分, 萬事出矣. 聖人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曰: 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道, 曰仁與義. 又曰: 原始反終, 故知死生之說. 大哉! 易也, 斯其至矣!

[太極圖說譯文]

無極이면서 太極이다¹⁾, 太極이 動하여 陽을 生하고 動이 極하면 靜 하나니 靜하여 陰을 生한다. 靜이 極하면 다시 動한다. 한 번 動하고 한 번 靜함이 서로 그 뿌리가 되어 陰으로 갈리고 陽으로 갈리니 兩儀가 맞 서게 된다. 陽이 變하고 陰이 合하여 水·火·木·金·土를 生하니 五氣가 順次로 퍼지어 四時가 돌아가게 된다. 五行은 하나의 陰陽이요 陰陽은 하나의 太極이요 太極은 본래 無極이다. 五行의 生함이 각각 그 性을 하나씩 가지니 無極의 眞과 二五²⁾의 精이 妙合하여 凝結되다.

1) 原文의 「無極而太極」이란 말은 뜻 풀이에 있어서 問題가 많았던 말이다. 朱子當時에 陸象山은 이 말을 「無極으로부터 太極이 생겼다」는 意味로 解釋하여 이것은 道家의 說을 따온 것이라 해서 이 말을 좋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朱子는 이것을 「無極이면서 太極이다」란 뜻으로 풀이하어 「無極」에서 「太極」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極」이 없으면서 가장 큰 「極」이 된다 해서 「無極而太極」이라고 말한 것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宇宙의 最終的實在은 時間·空間內에 있는 어떤 實體가 아님으로 그것이 비록 「最終的」(極)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 最終的인 것을 하나의 實體로 알아서는 안되며 그와 同時에 그것이 비록 時空內의 實體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 해서 그 「無極」을 虛無로 보아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萬化의 樞紐가 되어 이 宇宙의 모든 것을 說明해 주는 總原理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意味에서 朱子는 「無極而太極」이란 말을 「無」이면서 「有」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翻譯에서는 朱子の 解釋대로 한 것이다.

乾道는 男이 되고 坤道는 女가 되어 두 氣가 서로 感하여 萬物을 化生한다. 萬物이 生하고 生하여 變化는 다함이 없다. 오직 사람이 그 秀함을 얻어 가장 靈하다. 形이 이미 생기니 神³⁾이 知를 發하고 五性⁴⁾이 感하여 움직이니 善과 惡이 갈리면서 萬事가 생겨난다. 聖人은 이것을 定하되⁵⁾ 中正과 仁義로써 하고(自註: 聖人の 道는 仁·義·中正일 따름이다) 靜을 主로하여(自註: 無欲함으로 靜하다) 人極⁶⁾을 세운다. 그러므로 聖人은 天地로 더불어 그 德이 습하고 日月로 더불어 그 明이 습하고 四時로 더불어 그 序가 습하고 鬼神으로 더불어 그 吉凶이 습한다. 君子

2) 「二」는 陰陽이요 「五」는 五行이다.

3) 「神」은 鬼神이란 神이 아니라 「精神」이란 「神」이다. 여기서는 「意識」과 같은 말로 보아도 좋다.

4) 五性=仁·義·禮·智·信의 性이다. 宇宙自然에 있어서는 水火木金土 五行의 氣가 萬物을 化生하고 人間에 있어서는 仁義禮智信의 五性이 感動해 나가면서 善惡是非의 萬事가 생긴다.

5) 「定之以中正仁義」란 말에 있어서 「之」(이것)는 「善惡分·萬事出」하는 人間社會의 現象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사람의 社會生活이란 것은 「善惡分·萬事出」하는 現象世界 속에서 그 「萬事」를 處理해 가면서 生을 營爲하는 것이다. 아니 嚴格히 따지고 보면 「生」이란 그 自體가 卽 「萬事處理」의 連續이다.

「萬事處理」란 바꿔말하면 즉 「問題解決」이다. 生活이란 公·私를 勿論하고 問題를 解決해 가는 것이다. 사람의 生活이 動物이 生活과 다른 것은 問題를 당했을 때 그것을 올바로 處理하려 하는데 있다. 올바로 處理한다는 것은 「情·理」兩面의 要求에 다 合當하도록 함을 뜻한다. 여기에 있어서 「事物處理」의 基準이 必要하게 된다. 聖人은 이 基準을 中正·仁義로써 定하였다고 周濂溪는 보는 것이다.

6) 「主靜入人極」= 「靜을 主로하여 人極을 세운다」로 번역된다. 「人極」이란 「極」은 「皇極」이란 「極」과 같은 用法으로 쓰인 것인데 「極則」「最高原理」「至上標準」의 뜻을 가지는 말이다. 그러므로 「立人極」이란 人間倫理生活의 最高標準을 세운다는 뜻이다. 그러면 그 最高標準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濂溪는 이 글에서 「主靜」= 「靜을 主함」으로써 最高標準을 삼았다. 그런데 「靜」에 對하여 濂溪는 自註하기를 「無欲故靜」이라 하였다. 이 欲은 私欲을 말하는 것이니 「私欲이 없기 때문에 靜하다」고 그는 말하는 것이다. 앞에 말한 事物處理의 基準인 中正·仁義를 實現하려면 사람은 먼저 마음 속에서 人欲의 私를 버리고 天理의 公에 따

는 이것을 닦으므로吉하고 小人은 이것을 어김으로⁷⁾凶하다. 그러므로 가로되 「天의 道를 세워 陰과 陽이라 하고 地의 道를 세워 柔와 剛이라⁸⁾ 하고 人의 道를 세워 仁과 義라 한다」고 하며 또 가로되 「始에 原하고 終에 反하면 生死의 說을 안다」고⁹⁾ 한 것이니 偉大하도다 易이여! 이것이 그 至極함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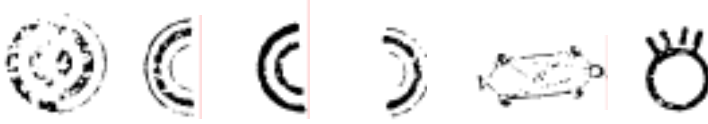
[退溪의 說明]

(上段)

○ 이것이 이른바 無極이면서 太極이다. 陰陽에 卽하여 그 本體가 陰陽과 섞이지 아니함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림 ㄱ]이것은 ○의 動하여 陽이 되고 靜하여 陰이 되는 것이다. 맨 속에 있는 ○은 그 本體요 [그림 ㄴ]은 [그림 ㄷ]의 뿌리요 [그림 ㄷ]은 [그림 ㄹ]의 뿌리이다. [그림 ㄹ]은 陽이 變하고 陰이 合하여 水·火·木·金·土를 生하는 것이다.

[그림 ㅁ]이것은 無極·陰陽·五行이 妙合하여 淸새 없이 되는 所以이다.

-
- 7) 「君子修之吉·小人悖之凶」의 「之」는 「中正仁義而主靜」하는 일을 가르켜 말한 것이다.
- 8) 立地之道·曰柔與剛 = 地의 道는 水火木金土 五行으로 이루어진다. 오행은 그 성격으로 말하면 柔와 剛에 불과하다. 水·火는 柔한 것이요 木金土는 剛한 것이다. 이것을 각각 개별적으로 비교하면 水는 火보다 柔하고 火는 水보다 剛하며 火는 木보다 柔하고 木은 火보다 剛하며 木은 金보다 柔하고 金은 木보다 剛하며 金은 土보다 柔하고 土는 金보다 剛하다. 地上의 物체는 氣·質로 이루어지는데 기질도 柔와 剛으로 논하게 된다.
- 9) 「原始反終·故知死生之說」 = 周易繫辭의 말이다. 朱子易本義의 풀이에 의하면 「原」이란 앞으로 미루어 보는 것이요 「反」이란 뒤에서 돌이켜 보는 것이다. 始初에 生하게 된 所以를 미루어 생각해 보고 終말에 死하게 되는 所以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처음에 氣化의 응결이 있으므로 生하는 것이니 이것은 곧 陽의 變이요 뒤에 氣化의 成이 있으므로 死하는 것이니 이것은 곧 陰의 化이다. 그러므로 死生의 理를 易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ㄱ][그림ㄴ][그림ㄷ][그림ㄹ] [그림ㅁ] [그림ㅂ]

○ 「乾의 道가 男이 되고 坤의 道가 女가 된다」함은 氣化한 것으로써 말하는 것이니 각각 그 性을 하나씩 가짐으로 남녀가 각각 하나의 太極을 가진다.

○ 「萬物이 化生한다」함은 形化한 것으로써 말하는 것이니 각각 그 性을 하나씩 가짐으로 萬物이 각각 하나의 太極을 가진다.

(下段)

太極圖는 周濂溪가 스스로 그림을 만들고 설명을 붙친 것입니다. 平巖葉氏¹⁾ 이르기를 『이 그림은 繫辭의 「易에 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兩儀를 낳고 兩儀가 四象을 낳는다」는 뜻을 미루어 밝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易은 卦爻로써 말했고 이 그림은 造花로써 말했습니다. 朱子는 이르기를 『이것은 道理의 大頭腦處요 또 百世道術의 淵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첫 머리에 이 그림을 揭載하는 것은 역시 近思錄에서 이 圖說을 첫 머리에 실리는 뜻과²⁾ 같은 것입니다. 대개 聖人을 배우는 者는 여기서부터 端緒를 찾아서 小學·大學의 類에 힘쓰면 그 功을 거두는 날에 이르러 一源으로 끝까지 逆及해 올라가면 이른바 「理를 窮하고 性을 다하여 命에 이른다」³⁾는 것이 이것이며 이른바 「神妙를 다하고 造花를 알아 德의 盛者가 된다」⁴⁾ 것도 이것입니다.

1) 宋 理宗 때 사람, 이름은 采, 近思錄集解를 지었다.

2) 朱子와 함께 近思錄을 編纂한 呂東萊祖謙은 近思錄이 編輯된 바와 跋文을 써서 太極圖說을 卷首에 두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바 있다.

『뒤에 後進들에게 의리의 本源에 대하여 별안간 말할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梗概를 망연히 모르고 있으면 어찌 끝 닿는 곳이 있겠는가? 篇首에 이를 서열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名義를 알고 嚮望하는 바가 있게 하고저한 것 뿐이다.』

3) 易·說卦傳에 「和順於道德而理於義·窮理盡性以至於命·」이라 하였다.

4) 易·繫辭傳에 「窮神知化·德之盛者也·」라고 하였다.

□ 譯者의 말 □

濂溪는 이 圖說에서 宇宙의 最後根源을 「無極而太極」이라고 보고 太極으로부터 이 세계를 도출해 낸다. 그것을 도출해 내는 데 사용된 기본개념은 陰陽·動靜·五行이다. 태극도설전체를 보통 세 段落으로 갈라서 본다. 「無極而太極」으로부터 「萬物生生而變化無窮」까지를 第一단락으로 보고 「惟人也得其秀而最靈」으로부터 「小人悖之凶」까지를 第二단락으로 보고 「故曰立天之道曰陰與陽」으로부터 「大哉易也·斯其至矣」까지를 第三段落으로 본다. 第一단락에서는 太極·陰陽·五行의 動靜·變化로 인하여 萬物이 生成하는 宇宙의 連進과정을 말하였으니 이것은 天道에 관한 것이요 第二단락은 인간이 생겨난 다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가 생기면서 五性의 감동으로 선악이 갈리고 만사가 생겨나서 吉凶禍福의 현상이 생김을 말하고 萬事를 처리하는 기준으로서의 「中正仁義主靜立人極」을 말하였으니 이것은 人道에 관한 것이요 第三단락은 第一, 第二단의 뜻을 종합하여 周易의 말을 끌어 결론을 맺은 것이다.

그런데 太極圖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는 「萬物化生」까지의 우주생성, 즉 天道에 관한 것 뿐이요 인간발생이후의 「五性感動·萬事出」하는 인간문제에 관한 것은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다. 太極圖說에는 聖人は 「與天地合其德·月日合其明·四時合其序·鬼神合其吉凶」이라 하여 天道와 人道의 합일을 이상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天道와 人道가 어떻게 합일되는가가 그림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宋學이 우리나라에 들어 온 다음 우리 나라 儒學者들은 이 점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天道로부터 어떻게 人道가 연출되며 人道는 어떻게 天道에 合一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한 끝에 이것을 이론으로 전개함과 아울러 그림으로 표시해 보려고 시도한 분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가 陽村 權近이 처음이요 다음이 秋巒 鄭之雲과 退溪李滉이다. 양촌은 入學圖說에서 天人心性合一圖를 시도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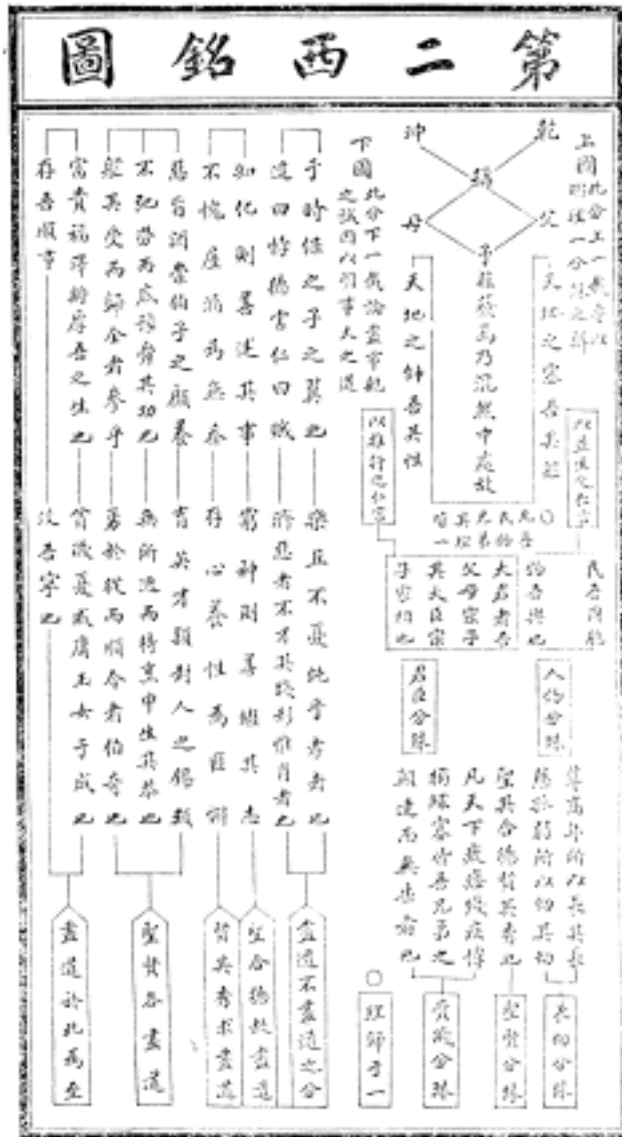
고 추만·퇴계는 天命圖를 시도하여 비로소 「韓國的」 性理學의 기초를 세워 놓았다.

뿐만 아니라 周濂溪의 太極圖說에 나타난 「主靜」철학은 한국적 발전의 한 형태로서 磻溪 柳馨遠의 土地制度개혁을 중심으로 한 실학사상을 낳게 되었다. 磻溪는 그의 親友 裴尙瑜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있다.

「功夫는 비록 動과 靜에 다 일관해야 하지만 靜이 아니면 本을 삼을 것이 없다, 학문하는 사람만 이리할 뿐 아니라 造花의 理도 유행해 마지 아니하여 서로 그 뿌리가 된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 主하는 곳은 반드시 靜에 있다. 聖人の 井田法도 地에 本하여 사람을 평균하여 하는 것이니 이 또한 靜으로부터 動을 制하는 뜻이다.」(磻溪隨錄)

여기 말한 「造花의 理가 유행해 마지 않으며 서로 그 뿌리가 된다」는 말은 太極圖說에서 말한 太極動而生陽·靜而生陰·一動一靜·互爲其根, 이란 말을 뜻한 것이며 「主하는 곳은 반드시 靜에 있다」는 말이나 「靜으로부터 動을 제한다」는 말도 모두 太極圖說에서 말한 「主靜立人極」의 뜻이다. 磻溪는 여기서 濂溪의 性理學인 主靜哲學을 그의 井田制의 실시 때까지 적용하였다. 公田制의 제정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그것이 한번 행해지면 貧貴가 절로 골라지고 戶口가 절로 밝혀지고 軍伍가 절로 정돈되고 그런 다음에야 教化(教育)을 실시하여 모든 인간의 문화 활동이 그 토대 위에서 가능해 지게 되니 이것이 靜으로써 動을 제한하는 뜻이다. 中國에서는 淸代의 실학이 宋學·性理學을 부정하면서 性理學의 반대개념으로 실학이 생겨 났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성리학의 근거 위에서 실학이 생겨났다. 이것이 성리학의 「韓國的」 발전이다.

第二 西銘圖



〔西銘原文〕

句讀點은 譯者가 찍은 것)

乾稱父, 坤稱母. 予茲藐焉, 乃混然中處. 故, 天地之塞, 吾其體 ; 天地之師, 吾其性. 民, 吾同胞 ; 物, 吾與也. 大君者, 吾父母宗子 ; 其大臣, 宗子之家相也. 尊高年, 所以長其長 ; 慈孤弱, 所以幼其幼. 聖其合德, 賢其秀也. 凡天下疲癯殘疾, 孤獨鰥寡, 皆吾弟之顛連而無告者也. (퇴계는 여기까지를 上一載로 갈랐다.) 于時保之, 子之翼也. 樂且不憂, 純乎孝者也. 違曰悖德, 害仁曰賊. 濟惡者不才 ; 其踐形, 惟肖者也. 知化則善術其事, 窮神則善繼其志. 不愧屋漏爲無忝, 存心養性爲匪懈. 惡旨酒, 崇伯子之顧養 ; 育英才, 穎卦人之錫類. 不弛勞而底豫, 舜其功也 ; 無所逃而待烹, 申生其恭也. 體其受而歸全者, 參乎 ; 勇於從而順令者, 伯奇也. 富貴福澤, 將厚吾之生 ; 貧賤憂戚, 庸玉女于成也. 存吾順事, 沒吾寧也.(퇴계는 여기까지를 下一載로 갈랐다.).

[西銘譯文]

乾을 아버지라 부르고坤을 어머니라 부른다. 나 이 조그만 몸이 혼연히 그 가운데 處해 있도다. 그러므로 천지간에 차 있는 것은 나의 形體요¹⁾ 天地를 이끄는 것은 나의 本성이다.²⁾ 백성은 나의 同胞요 物은 나의 與族³⁾이다. 天子(大君)란 것은 나의 父母의 宗子요, 그 大臣이란 것은 宗子の 家相⁴⁾이다. 나이 많은 이를 높이는 것은 그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所以요 외롭고 弱한 이를 붙잡히 여기는 것은 그 어린이를 어린이로 대하는 所以이다. 聖人은 그 德을 합한⁵⁾ 사람이요 賢人은

-
- 1) 「天地之塞」=孟子浩然章에 「基爲氣也·至大至剛·塞乎天地之間」이라고 있고 「吾其體」=는 孟子浩然章에 「氣, 體之充也·」라 한데 근거한 것.
 - 2) 「天地之師·吾其性」은 孟子浩然章의 「志, 氣之師也·」란 말에 근거한 것, 「師」는 장수란 말이지만 인술한다는 뜻이 있다.
 - 3) 「與也」의 「與」는 지금 말로 「與黨」, 「黨與」라 할 때의 「與」와 같은 뜻이니 「與族」이라면 「같은 족속」이란 말이다.
 - 4) 「家相」=封建시대의 諸侯·卿大夫들은 집에 일보는 사람을 두어서 家事를 처리하게 하는데 이것을 「家宰」 혹은 「家相」이라 한다.
 - 5) 「聖其合德」=易·乾卦·文言에 「聖人與天地合其德」이라고 있음.

그 빼어난⁶⁾ 사람이다. 무릇 天下의 늙고 병들고 외로운 홀아비와 과부는 다 내 兄弟中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고 呼訴할 데 없는 者이다(퇴계는 이상을 上一載로 갈라서 上圖로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理一分殊의 구별을 밝힌 것이라 하였다). 때때로 보존함은 자식의 공경이요⁷⁾ 즐거워 근심 아니함은 孝에 순수한 者이다⁸⁾. 天命을 어김을 悖德이라 이르고 仁을 함함을 賊이라 이른다. 惡을 더하는 者는 不才요⁹⁾ 그 形을 踐함은 오직 그 아버지를 닮은 者이다¹⁰⁾. 造花를 알면 그 일을 잘 이어 쫓고¹¹⁾ 神妙를 다하면 그 뜻을 잘 이어 받든다¹²⁾. 방구석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 부모를 욕되게 아니 함이요 心を 存하고 性을 養함은 天을 섬김에 게을리 아니함이다. 맛난 술 싫어함은 禹임금의 아버지 돌봄이요¹³⁾ 英才를 기르는 穎考叔이 그 類를 길이 이어가게 함이다¹⁴⁾. 괴로워

-
- 6) 「聖其秀」=周濂溪太極圖說에 「惟人也，得其秀而最靈」이라고 있음.
 7) 「于時保子·予之翼也」=詩經·周頌에 「我其夙夜·畏天之威·于時保之」라고 있는데 天의 威를 두려워 하여 天이 인간을 내려 살펴보는 뜻을 보존한다는 말이며 大雅에 武王이 鎬京으로 遷都할 때의 일을 말하면서 「貽厥孫謀·以燕翼子·」라고 하였는데 「燕翼子」는 翼子を 편안하게 한다는 말이요 翼子는 恭敬하는 자식이란 뜻이니 武王이 아들 成王을 가리킨 것이다.
 8) 「樂且不憂·純乎孝者也」=易繫辭에 「樂天知命，故不憂」라고 있고 左傳에 穎考叔을 「純孝」라고 하였다. 穎考叔의 故事는 다음 註(14)에 참조할 것.
 9) 「濟惡者不才」=左傳에 渾敦·窮奇·檮杌 三族이 있는데 다 재주 없는 못난 족속들이라 대대로 兇惡한 짓을 하여 그 악명을 더하였다고 한다.
 10) 「其踐形惟肖」=孟子에 「形色天性也，惟聖人然後·可以踐形·」이라고 있다. 形을 踐한다는 것은 天性의 自然한 법칙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말이다. 「惟肖」란 「肖」는 「같다」「닮았다」라는 뜻으로서 자식이 父母를 공경하여 잘 섬기면 효자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초한 자식이라 한다. 그러면 불초는 不孝를 의미한 것이요 「肖」는 孝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張橫渠는 여기서 肖를 닮았다는 말로 쓰면 서도 實은 「天을 잘 섬긴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11) 「知化則善述其事」=繫辭에 「窮神知化·德之盛也·」라 있고 中庸에 「夫孝者·善繼人之志·善述人之事者也·」라고 있다.
 12) 「窮神則善繼其志」=前項참조.
 13) 「惡旨酒·崇伯子之顯養·」=國語에 「儀狄이 술을 만들었는데 禹가 마시니 매우 달다. 禹는 말하기를 「後世에 반드시 술로써 그 나라를 망칠 사람이 있을 것이다」고 하면서 드디어 儀狄을 멀리하고 단 술을 끊어 버렸다.」고 한다. 崇은 國名인데 伯爵의 나라이다. 禹의 아버지 鯀이 崇에 封했기 때문에 「崇伯」이라고

도 공경을 게을리 아니하여 마침내 아버이를 기쁘게 하니 이는 舜임금의 효도의 功이요 도망칠 곳 없어 죽음도 피하지 않음은 申生의 공경이다¹⁵⁾. 주신 몸을 받아 온전하게 돌아감은 曾參이며¹⁶⁾ 따름에 용감하여 명령에 순종함은 伯奇이다¹⁷⁾. 부귀와 福澤은 장차 나의 생을 두터이 할

한 것이니 「崇伯의 子」는 즉 禹를 말하는 것이다.

「顧養」 두 字의 출전은 孟子의 「博奕好飲酒, 不顧父母之養·」이라 한데서 따온 말이다.

- 14) 「育英才類封人之錫類」=穎封人은 穎考叔이니 鄭莊公의 臣下이다. 莊公은 共叔段이 叛亂을 일으킨 일 때문에 어머니를 穎城에 가두어 두고 盟誓하기를 「黃泉에 가지 않으면 서로 만나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 後에 莊公은 이것을 후회하였다. 考叔이 이 소식을 듣고 莊公을 찾아 보았다. 公이 식사대접을 했는데 考叔은 고기 반찬과 국을 床에서 내려 놓으면서 「이것으로써 저의 어머님께 드리려고 합니다」하는 것이다. 莊公은 말하기를 「그대는 어머니가 있는데 나는 없다」고 한다. 考叔은 「무슨 말씀입니까?」하고 물었다. 公은 전후사정을 이야기한다. 그 때 考叔은 말하기를 「그러면 땅 속을 파서 샘을 내게 하고 굴을 뚫고 서로 만나보면 누가 잘못이라 하겠습니까?」하였다. 公은 그 말대로 땅굴을 뚫고 어머니를 만나 보았다. 이로부터 母子간의 情이 다시 회복되어 그 樂이 融融하였다. 君子曰:「考叔, 純孝也·愛其母, 施及莊公·詩曰:孝子不匱, 永錫爾類·其此之謂乎·」라고 하였다. 橫渠는 이 말을 인용하여 君子가 자기의 천성의 善을 미루어 天下의 英才들로 하여금 다 善하게 하는 것이 마치 考叔이 자기의 孝를 미루어 莊公에게까지 孝자가 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 15) 「無所逃而待烹·申生其恭·」=普獻公이 驪姬의 참소를 듣고 太子 申生을 죽이라 하니 或者가 申生에게 자기변명을 하라고 권했으나 不可하다 하고 타국으로 도망하라고 권했으나 역시 듣지 않고 드디어 자살하였다. 뒤에 諡를 「恭」이라고 지어 주었다. 이제 「待烹」-(삶아 죽임을 기다린다)-이라고 한 것은 烹은 술·가마도 피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君子가 患難에 처했을 때 능히 죽음을 지키어 움직이지 아니함이 이와 같으면 그 敬天하는 마음이 申生의 恭과 같다는 말이다.
- 16) 「體其受而歸全者參乎」=禮記에 「父母가 온전하게 낳아 주신 몸이니 자식은 마땅히 온전하게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父母全而生之, 子全而歸之·)라고 하였고 曾子(이름은 參)는 죽을 때에 弟子들을 불러 놓고 「나의 발을 열어 보고 나의 손을 열어 보아라……이제야 나는 不孝를 면한 줄 알겠노라. 젊음이 들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사람이 天에서 받은 것을 간직해 가지고 喪失함이 없이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즉 天을 위하는 曾參이 된다는 말이다.
- 17) 「勇於從而順令者·伯奇也·」=伯奇는 尹吉甫의 아들이다. 吉甫가 후처의 말을 듣고 아들을 逐出하니 伯奇는 이른 아침녘에 들에 나가 거문고를 들고 「履霜操」란 歌曲을 부르며 노래하다가 강물에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한다.

것이요 貧賤과 憂戚은 써 너를 玉成시킴이니라¹⁸⁾. 살아있는 동안 나는 順하게 섬기고 죽을 때는 나는 편안히 돌아 가리라(于時保에서 부터 末端까지를 퇴계는 下一載로 가르고 事親의 誠을 다함을 논하여 그것으로 써 事天의 道를 밝힌 것이라고 말하였다).

[退溪가 引用한 宋儒의 西銘解說]

○朱子가 말하기를 『西銘은 程子가 理一分殊-(理는 하나이나 분이 다름)-를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 대개 乾으로써 父를 삼고 坤으로써 母를 삼는 것은 生을 가지는 종류로서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이 소위 「理一」이다. 그러나 人·物의 生이 血맥을 가지는 족속들은 각각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고 그 자식을 자식으로 하는 것이니 그 분이 또 어찌 다르지 않겠는가? 一統이면서 萬殊이니 비록 天下를 一家로 하고 中國을 一人으로 해도 兼愛의 弊에 흐르지 않는 것이요 萬殊이면서 一貫이니 비록 親疎가 情이 다르고 貴·賤이 등급이 다르더라도 나만 위하는 私에 桎梏되지 않는다. 이것이 西銘의 大旨이다. 그 親親의 후함을 미루어 大無我的 公으로써 事親하는 誠에 인하여 事天하는 道를 밝힌 것을 보면 어디를 가나 「分」에 서서 「理一」을 미루는 것이 아님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西銘의 前一段은 바둑盤 같고 後一段은 사람이 바둑을 두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龜山楊氏는 말하기를 「西銘은 理가 하나이면서 분이 다르다. 그 「理一」임을 알기 때문에 仁이 되는 것이요 그 「分殊」임을 알기 때문에 義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孟子가 「親을 親한 다음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 다음 物을 사랑한다」고 한 것과 같다. 그 분이 같지

18) 「庸玉女子成也」=「玉女」의 「女」는 汝 [너] 로 통용하는 字다. 「玉汝」는 너를 玉같이 여긴다. 즉 귀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庸」은 「以」자나 「用」자와 같은 「...로 써」하 하는 뜻이다. 그러므로 「庸玉汝于成」은 「[貧賤·憂戚]으로써 너를 귀중히 여겨 성취시키려는 것이다.」라는 뜻이 된다. 여기 「汝」는 實은 「나」를 가리킨 말이다. 즉 가난과 근심 걱정은 모두 하늘이 나를 귀히 여겨서 나를 완성시켜 주려고 해서 그런 것을 내게 내려 준다는 뜻이다.

아니하므로 그 베푸는 바가 차등이 없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雙峯饒氏は 말하기를 『西銘의 前一節은 사람이 天地의 아들임을 밝혔고 後一節은 사람이 天地를 섬기기를 마땅히 자식이 父母를 섬기듯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退溪의 說明]

西銘은 橫渠張子가 지은 것입니다. 처음 이름은 「頂頑」이었는데 程子가 고쳐서 西銘이라고 하고 林隱 程氏가 이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대개 聖學은 仁을 구하는데 있는 것이니 모름지기 이 뜻을 깊이 체득하여야 天地萬物과 더불어 일체가 됨이 진실로 이렇다 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仁을 하는 工夫가 비로소 親切하고 맛이 있어서 莽蕩히 交涉없이 될 염려가 없고 또 物을 자기로 인정하는 병통도 없이 마음의 德이 온전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程子는 이르기를 西銘의 뜻은 극히 완비하니 이것은 仁의 體이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다 채워 擴充한 때는 聖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西銘圖說明]

그림은 上圖와 下圖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上圖에서 원문의 「乾稱父」로부터 「顛連而無告者也」까지를 圖表로 표시하였는데 이 一截은 오로지 「理一分殊」의 辨을 밝힌 것이요 下圖에서는 원문의 「于時保之, 子之翼也」로부터 「存吾順事, 沒吾寧也」까지를 도표로 표시하였는데 이 一截은 어버이 섬기는 정성(誠)으로써 하늘을 섬기는 道를 설명한 것이다.

그림에 있어서 原文에 없는 말을 새로 첨가하여 설명에 사용한 것이었다. 「民吾同胞 物吾與也」를 「以並生之仁言」이라고 설명을 부쳤고 「大君者吾父母宗子·其大臣宗子·家相也」를 「以推行之仁言」이라고 설명을 부쳤다. 「並生之仁」이란 사람과 만물이 다 같이 생을 타고 났기 때문에 並生이라고 하는 것이요, 「推行之仁」이란 大君이나 「大臣」은 家庭에 있

어서의 父子관계의 윤리를 국가사회에 推行하는 것이요, 그것을 더 확대하여 宇宙에까지 미쳐 天地(乾坤)를 부모처럼 보면 그 仁은 모두 「推行」으로써 말하는 「仁」이 되는 것이다.

다음 「人物分殊」는 「民吾同胞·物吾與也」를 설명하는 말이요, 「君臣分殊」는 「大君……大臣……」을 설명하는 말이다. 「長幼分殊」는 「尊高年所以長其長·慈孤弱所以幼具幼」를 설명하는 말이요, 「聖賢分殊」와 「貴賤分殊」도 각각 그 위에 있는 원문의 말을 설명하는 문구이다.

「盡道不盡道之分」은 원문의 「于時保之」로부터 「其踐形惟肖者也」까지의 말을 설명하는 문구요, 그 다음의 「聖合德故盡道」로부터 「盡道於此爲至」까지도 모두 그 위에 있는 원문의 말을 설명하는 文句이다.

第三小學圖



<譯者の 말> 小學은 朱子가 先秦時代의 儒家經典과 史書속에서 古대 小學의 教育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말들을 蒐集하여 편찬한 冊이다. 그 내용이 立敎·明倫·敬身 三大綱領으로 되고 卷頭에 朱子가 지은 題辭가 실려 있다.

[朱子の 小學題辭原文] (句讀은 譯者)

元亨利貞, 天道之常, 仁義禮智, 人性之綱. 凡此厥初, 無有不善, 藹然四端, 隨感而見.

愛親教兄, 忠君弟長, 是曰秉彝, 有順無彊. 惟聖性者, 浩浩其天, 不如毫末, 萬善足焉.

衆人蚩蚩, 物欲交蔽, 乃頹其綱, 安此暴棄. 惟聖斯惻, 建學立師, 以培其根, 以達其支.

小學之方, 灑掃應對, 入孝出恭, 動罔或悖. 行有餘力, 誦詩讀書, 詠歌舞蹈, 思罔或逾.

窮理修身, 斯學之大, 明命赫然, 罔有內外. 德崇業廣, 乃復其初, 昔非不足, 今豈有餘.

世遠人亡, 經殘敎弛. 蒙養弗端, 長益浮靡, 鄉無善俗, 世乏良材. 利欲紛拏, 異言喧豗.

幸茲秉彝, 極天罔墜. 爰輯舊聞, 庶覺來裔. 嗟嗟小子, 敬受此書. 匪我言耄, 惟聖之謀.

[小學題辭譯文]

元·亨·利·貞은 天道의 常이요 仁·義·禮·智는 人性의 綱이다. 이것들은 그 처음에 善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藹然한 四端이 感에 따라 나타나서 아버지 사랑하고 兄에 공경하고 임금에 충성하고 어른에 공손하니 이를 일러 「秉彝」(本性)라 한다. 本性은 順함이 있되 강제함이 없다. 오직 聖人은 性대로 하는 이라 하늘과 같이 넓고 넓어 털끝만한 힘도 들이지 않아도 萬善이 갖추어 진다. 衆人은 미련하여 物欲이 가리워서 그 綱을 무너뜨리고 自暴·自棄를 편안히 한다. 성인은 이를 측은하

게 생각하여 學을 세우고 스승을 세워 그 뿌리를 복돋우고 그 가지를 퍼게 하였다. 小學의 방법이란 灑掃하고 應對하고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경하여 행동을 理法에 어긋남이 없게 함이다. 行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誦詩·讀書하고 詠歌·舞蹈하여 생각이 分에 넘침이 없게 해야 한다. 理를 窮究하고 몸을 닦음은 이 학문의 큰 것이다. 밝은 命이 환하여 안과 밖이 없으니 德을 높히고 業을 넓혀야 그 처음으로 돌아간다. 옛적에 부족한 것이 아니었던 이제 어찌 남음이 있으랴? 世代가 멀어지고 聖人이 없어져서 經典이 잃어지고 가르침이 헤이하니 어린이 養함이 단정치 못하여 자라서 더욱 浮薄해 지니 마을에 좋은 풍속 없어지고 世代마다 좋은 人材 부족하다. 利欲에 옥신각신 싸움하며 異端의 말로 시끄러히 떠들기 잘 한다. 다행히 이 本性이 끝까지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이에 舊聞을 주어 모아 뒤에 오는 世代를 깨우칠까 하노라. 탄식스럽도다. 젊은 사람들이여! 이 冊을 잘 받들어 읽으라 이것은 나의 노망한 말이 아니라 聖人の 말씀이다.

[朱子大學或問의 말]

或者가 묻기를 「그대는 사람에게 大學의 道를 말하려 하면서 또 小學의 글을 상고하려고 하니 무슨 까닭인가?」 朱子 가로되 『學의 大小는 물론 같지 아니하나 그러나 그 道됨은 한가지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 小學을 익히지 아니하면 그 방심을 거두고 그 德性을 養하여 大學의 基本을 삼을 수 없고 자라서 大學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리를 살피어 사업에 實施하여 小學의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이제 幼學의 土로 하여금 반드시 먼저 스스로 灑掃應對進退의 間과 禮樂射御書數의 翫에 다 익숙해지게 하고 그 자람을 기다려서 明德·新民에 나아가 至善에 그치도록 하는 것은 순서상 당연한 것인데 또 무엇이 불가한가? 만약 그 나이 이미 자라서 이에 미치지 못했으면 어찌할 것인가? 答曰··그 세월이 이미 지나갔으면 물론 할 수 없지만 그 功夫의 순서·條目이야 어찌 補充하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나는 들으니 「敬」자 한자는 聖學의

처음과 끝을 다 이루는 所以의 것이라고 한다. 小學을 하는 이로서 이에 말미암지 않고서는 本願을 涵養하여 灑掃應對進退의 節과 六藝의 教를 삼가하지 못할 것은 물론이고 大學을 하는 이도 이에 말미암지 않고서는 聰明을 개발하여 德을 나아가게 하고 業을 닦아서 明德·新民의 功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불행히 때를 놓친 뒤에 학문하는 사람은 진실로 능히 이에 힘써서 大에 나아가고 그 小를 兼補하면 그 나아가는 所以가 장차 근본이 없어서 自達하지 못하게 될 염려는 없을 것이다.

[退溪의 說明]

小學은 옛적에 그림이 없었는데 臣이 삼가 本書의 목록에 의거하여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써 大學圖에 대하고 또 朱子의 大學或問에서 大學·小學을 通論한 說을 인용하여 二者의 用功의 梗概를 보였습니다. 대개 小學과 大學은 서로 기대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或問에서 그것을 통하여 논할 수 있었고 이 두 그림에서도 兼收하여 갖추어 말할 수 있습니다.

[小學內容說明]

小學은 內篇·外篇 두 부분으로 갈라서 편성되었다. 내편은 또 立教第一, 明倫第二, 敬神第三, 稽古第四로 편술되었는데 立教·明倫·敬身은 모두 虞·夏·商·周 시대의 성현의 말을 述한 것으로서 小學의 강령이 되는 것이요 稽古는 虞·夏·周 시대의 성현의 行을 採錄하여 立教·明倫·敬身の 實例를 보인 것이다. 외편은 嘉言第五, 善行第六으로 편술되었는데 嘉言은 漢代以來의 성인의 말을 述하여 立教·明倫·敬身の 내용을 더 넓힌 것이요 善行은 漢代以來의 성인의 行을 기록하여 立教·明倫·敬身の 사례를 더 보여 준 것이다. 「立教」란 教法을 세운다는 뜻이니 教法을 세워 사람을 교화함이요 「明倫」이란 人倫의 倫理를 밝힌다는 뜻이니 윤리를 밝힘으로써 스스로 다스리게 함이요 敬身이란 스스로 그 몸을 조심한다는 뜻이니 大學에 이른바 「修身」, 中庸에 이

른바 「誠身」이 다 이 敬身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제 그 總篇目を 보이면 다음과 같다.

內篇 凡二百十三章
 立教第一 凡十三章
 明倫第二 凡百〇七章
 明父子之親 凡三十八章
 明君臣之義 凡二十章
 明夫婦之別 凡九章
 明長幼之序 凡二十章
 明朋友之交 凡十一章
 敬身第三 凡四十六章
 明心術之要 共十二章
 明威儀之則 共二十一章
 明衣服之制 共七章
 明飲食之節 共六章
 稽古第四 凡四十七章
 立教 凡四章
 明倫 共三十一章
 敬身 共九章
 通論 共三章(立教・明倫・敬身を 통하여 논한 것.)

外篇 凡百七十二章
 嘉言第五 凡九十一章
 廣立教 共十四章
 廣明倫 共四十一章
 廣敬身 共三十六章
 善行第六 凡八十一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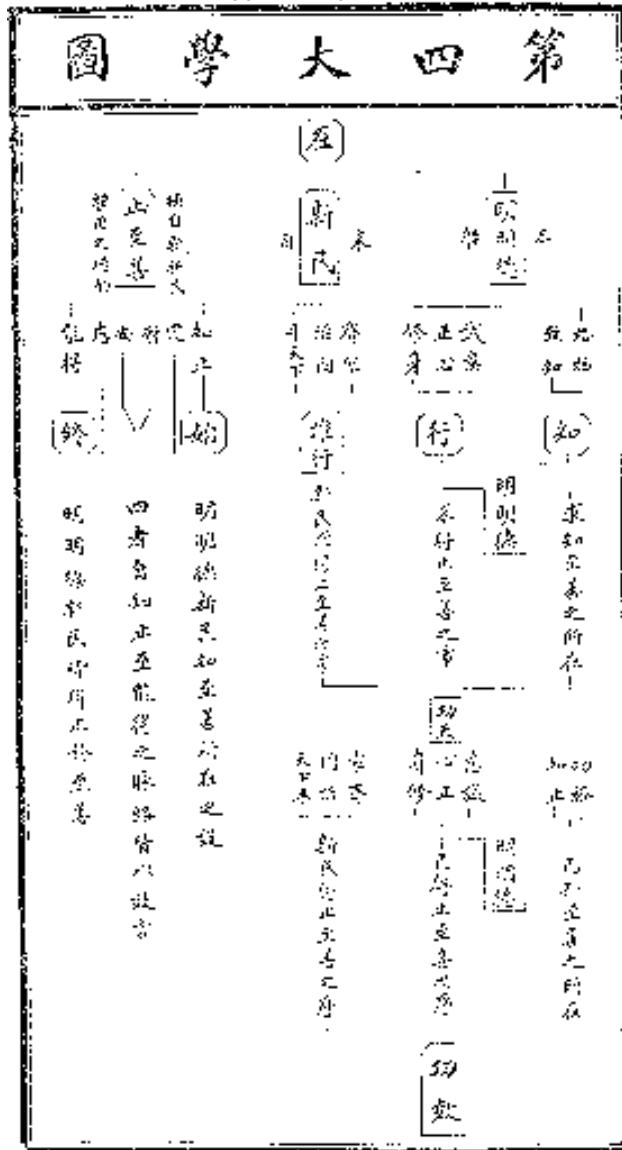
實立教 共八章

實明倫 共四十五章

實敬身 共二十八章

이제 이 원문 篇目과 퇴계의 그림과를 비교하면 다른 부분은 다 원문의 것과 일치하는데 「立教」에 있어서만 원문에 없는 내용분류가 되어 있다. 이것은 선생이 한 분류이다. 이 분류의 항목은 첫째 「胎育保養」, 둘째 「小大始終」, 셋째 「三物四術」, 넷째 「師弟授受」로 되어 있다. 胎育保養은 태교와 嬰兒保育에 관한 것이요 小大始終은 아동교육의 內容節目과 그 施教순서를 말한 것이요 「三物四術」에 있어서 三物이라함은 周禮에 이른바 「鄉三物」이란 것이니 즉 첫째 「六德」(知·仁·聖·義·衷·和), 둘째 「六行」(孝·友·睦·婣·任·恤), 셋째 「六藝」(禮·射·御·樂·書·數)이다. 四術은 詩·書·禮·樂을 말한다. 「師弟授受」란 師弟間에 施教하고 受學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 禮貌를 말한 것이다.

第四 大學圖



[大學經文]

大學之道，在明明德，在親民，在止於至善。知止而后有定，定而后能靜，靜而后能安，安而后能慮，慮而后能得。物有本末，事有終始，知所先後，則近道矣。古之欲明明德於天下；欲正其心者，先誠其意；欲誠其意者，先致其知；致知在格物。物格而后知至，知至而后意誠，意誠而后心正，心正而后身修，身修而后家齊，家齊而后國治，國治而后天下平。自天子以至於庶人，壹是皆以修身爲本。其本亂而未治者否矣。其所厚者薄，而其所薄者厚，末之有也。

[大學經文譯]

大學의 道는 明德을 밝힘에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고 至善에 그침에 있다. 그칠 데를 안 다음에야 定함이 있고 定한 다음에야 靜할 수 있고 靜한 다음에야 편안(安)할 수 있고 편안한 다음에야 생각(慮)할 수 있고 생각한 다음에야 얻을(得) 수 있다. 物은 本과 末이 있고 일은 終과 始가 있다. 먼저하고 뒤에 할 바를 알면 道에 가까우니라. 옛적에 明德을 天下에 밝히고자 하는 者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者는 먼저 그 집을 정돈하고 그 집을 정돈하고자 하는 者는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者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者는 먼저 그 뜻을 진실되게 하고 그 뜻을 진실되게 하고자 하는 者는 먼저 그 知를 다할지니 知를 다함은 物을 格함에 있다. 物이 格한 다음에 知가 다하고 知가 다한 다음에 뜻이 진실되고 뜻이 진실된 다음에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른 다음에 몸이 닦아지고 몸이 닦아진 다음에 집이 정돈되고 집이 정돈된 다음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다음에 天下가 平해진다. 天子로부터 庶人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다 修身으로써 근본을 삼는다. 근본이 어지러워지고 끝이 다스려지는 것은 없다. 그 厚할 데 薄하고 그 薄할 데 厚할 者는 있을 수 없다.

[退溪가 引用한 朱子 大學或問의 말]

或者 가로되 敬을 그대는 어떻게 工夫하는가? 朱子가로되 程子是 일찍 「主一無適」으로써 말하였고 「整齊嚴肅」으로써 말하였으며 門人 謝氏는 이른바 「常惺惺法」이란 것을 말한 일이 있고 윤(尹)氏는 「그 마음을 收斂하여 一物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한 일이 있다. 敬이란 一心의 主宰요 萬事의 근본이다. 그 힘쓰는 방법을 알면 小學을 여기에서 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을 알 수 있으며 小學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을 알면 大學을 이것으로써 끝을 마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一貫해서 의심없이 될 것이다. 대개 이 마음이 확립하고 이로 말미암아 物을 格하고 知를 致하여서 사물의 이치를 다하면 그것이 이른바 「德性을 높이고 學問을 일삼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뜻을 진실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써 그 몸을 닦으면 이것이 이른바 「먼저 그 大者를 세우면 小者가 빼앗지 못한다」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집을 정돈하고 나라를 다스려서 天下에까지 미치면 이것이 이른바 「자기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케 함」이며 「業을 두터이 하여 天下가 平形해 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하루도 敬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니 그러한 敬字 한 자가 어찌 聖學의 始終의 要領이 아니겠는가?

[退溪의 說明]

大學은 孔氏의 遺書입니다. 陽村權先生이 근래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章下에 인용된 或問의 大學·小學을 通論한 뜻은 小學圖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大·小學 두 說만 통해 볼 것이 아니라 위·아래의 여덟 그림도 다 마땅히 이 두 그림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개 위 두 그림은 端을 구하여 擴充하고 天을 體하여 道를 다하는 極致의 곳으로서 小學·大學의 표준·本原이 되고 아래 여섯 그림은 明善·誠身·崇德·廣業을 힘쓰는 곳으로서 小學·大學의 田地·事功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敬이란 것은 또 形上·形下를 막 통한 것이니 著工하고 收效함에 있어서 다 마땅히 중사하여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

로 朱子의 말씀도 저와 같았고 이제 이 十圖도 다 敬으로써 主를 삼았 습니다.

太極圖說에는 「靜」을 말하고 「敬」은 말하지 않았는데 朱子註 가운데 서 「敬」을 말하여 보충하였습니다.(退溪全書上 卷七原文 二〇三面下段)

[大學圖의 說明]

그림 第一層에서 三綱領의 관계를 말하여 明明德은 本이요 親民은 末이며 明明德은 體요 親民은 用이라 하였다. 止至善은 明明德과 親民의 최고목표라고 보아서 「極自新新民」이라 「體用之標的」이라고 표시하 였다. 「自新」은 明明德을 가리킨 것이요 「自民」과 「新民」을 極致에 이 르게 하면 그것이 「止至善」이 된다는 말이다.

그림 第二層은 八條目的 三綱領에 대한 관계를 말한 것이니 格物·致 知·誠意·正心·修身, 다섯가지는 明明德에 속하는 일이요 齊家·治國 ·平天下 세가지는 親民에 속하는 일이다. 이것을 「知」와 「行」으로 구 별하여 格物·致知는 「知」에 속하는 것으로 誠意·正心·修身은 「行」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齊家·治國·平天下도 行에 속하는 것 이나 그것은 개인수양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의 일이기 때문에 「推 行」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그러한 사회적 실천이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남을 이해해 주는 「忠恕」의 行이 되기 때문이다.

그다음 知止로부터 能得까지는 經文에 있는 「物有本末·事有終始」라 한 그 事의 先後순서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니 「知止」에서부터 「始」가 되어 定·靜·安·慮를 거쳐 能得에 이르면 「終」이 되는 것이다.

그림의 第三層과 第四層은 功夫와 功效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니 「格物·致知」를 하여 至善의 所在를 알고 「誠意·正心·修身」의 行과 「齊家·治國·平天下」의 推行을 통하여 그치는 일을 하는 것은 모두 功 夫에 속한 일이요, 「物格·知止(至?)·意誠·心正·身修·家齊·國治· 天下平」은 그러한 功夫가 선행됨으로부터 얻어진 功夫이다. 즉 「格物· 知止」는 이미 至善의 所在를 안 것이요 意誠·心正·身修는 이미 至善

을 그치는 순서를 얻은 것이요 家齊·國治·天下平도 至善에 그치는 순서를 얻은 것이다.

끝으로 六事に 있어서 「知止」는 明明德·新民·知至善所在의 效요 定·靜·安·慮 네가지는 知止로부터 能得에 이르는 脈絡이니 모두 效로써 말하는 것이요 「能得」은 明明德·新民이 다 至善에 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第五 白鹿洞規圖

第五 白鹿洞規圖



[朱子の 「白鹿洞規」는 과거 우리나라 書院의 學規의 모범으로서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洞規後叙」를 朱子は 다음과 같이 지었다—譯者]

[洞規後叙原文]

熹竊觀·古昔聖賢所以教人爲學之意，莫非講明義理，以修其身，然後推以及人；非徒欲其務記覽爲詞章，以釣聲名，取利祿而已。今之爲學者，既反是矣。然聖賢所以教人之法，具存於經，有志之士，固當熟讀深思而問辨之；苟知理之當然，而責其身以必然，則夫規矩禁防之具，豈待他人設之而後，有所持循哉？近世於學有規，其待學者爲已淺矣，而其爲法，又未必古人之意也。故今不得施於此堂，而特取凡聖賢所以教人爲學之大端，條列如右，而揭之楣間。諸君相與講明遵守，而責之於身焉，則夫思慮云爲之際，其所以戒謹恐懼者，必有嚴於彼者矣。其有不然，而或出於禁防之外，則彼所謂規者，必將取之，固不得而略也。諸君其念之哉！

[洞規後叙譯文]

나는 보건대 옛날 성현이 사람을 가르쳐 학문을 하게 하는 뜻은 다 義理를 講明하여 그 몸을 닦은 연후에 미루어 사람에게까지 미치려 함이요 한갓 博覽·強記에 힘써 詞章으로 이름이나 날리고 祿利나 취하려고 하는 것은 것은 아니었다. 지금 학문하는 사람은 이미 이와는 반대로 되었다. 그러나 성현들이 사람을 가르치던 法은 經典에 다 갖추어 있다. 뜻있는 선비는 마땅히 熟讀·深思하여 問辨해야 할 것이다. 진실로 理의 당연함을 알아서 그 몸을 責하여 반드시 이에 따르게 하면 規矩·禁防을 갖추는 것이야 어찌 남이 設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근세에 학교에 規約이 있는데 그 학자를 待함이 이미 淺薄하고 또 그 法이 반드시 옛 사람의 뜻이 아니므로 이제 이 學堂에는 그것을 실시하지 않고 특히 성현이 사람을 가르쳐 학문을 하게 한 大端을 취하여 右와 같이 조목조목 열거하여 門위 縣板에 提示한다. 諸君은 서로 더불어 講明하고 준수하여 몸에 실천하면 思慮·言行에 있어서 戒謹·恐懼

할 바가 반드시 저 보다도 더 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或禁防의 범위를 벗어남이 있으면 저 이른바 규약이란 것은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요 略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諸君은 잘 생각할지어다.

[退溪의 說明]

白鹿洞規는 朱子가 지어서 白鹿洞書院學者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白鹿洞은 南康軍¹⁾北匡廬山南쪽에 있다는 唐나라 때 李渤²⁾이 여기에 隱居하여 白鹿을 養하면서 自適하였으므로 그 洞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南唐때에 서원을 세우고 國庠이라고 불렀는데 學徒가 항상 數百人에 達하였습니다. 宋太宗이 書籍을 내려 주고 洞主에게 官職을 수여하여 寵勸하였습니다. 중간에 황폐하게 되어 朱子가 南康軍에 知事로 있을 때 朝廷에 請하여 이를 重建하고 學徒를 모아 規約을 設하여 道學을 倡明하니 書院의 數가 드디어 天下에 盛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삼가 規約의 글에 있는 본래의 條目에 의하여 이 그림을 그려 觀省에 便하게 하는 바입니다. 대개 唐·虞의 敎는 五品³⁾에 있는 三代之 學은 다 人倫을 밝히는 것이므로 規約의 公리와 力行도 다 五倫에 근본하였습니다. 그리고 帝王의 學은 그 規矩와 禁防의 그릇이 비록 일반 학자와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彝倫에 근본하여 窮理·力行함으로써 心法의 切要處를 얻으려고 함은 같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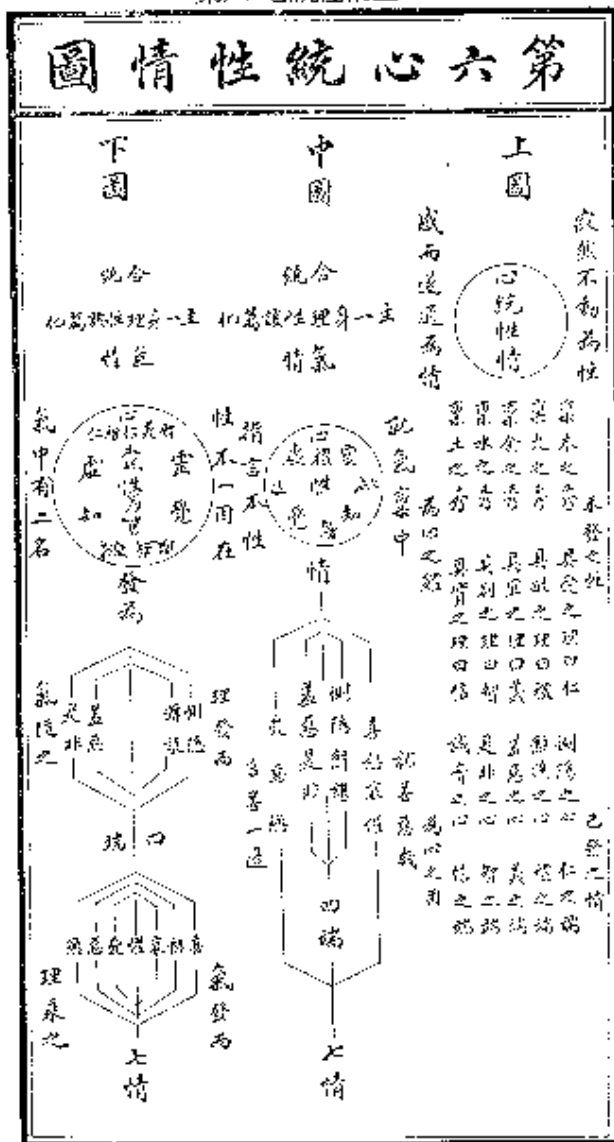
이상 五圖는 天圖에 근본하여 人倫을 밝히고 德業에 힘쓰는 데 功이 있는 것입니다.

1) 南康軍=江西省 星子縣의 府名이다. 宋나라에 南康軍을 두고 元에서는 南康路라 하고 明에서 南康府로 하다.

2) 李渤=唐沒陽人, 字는 潛之, 兄涉과 더불어 白鹿洞에 은거하다가 뒤에 江州刺史가 되어 白鹿洞에 臺榭를 構築하였다.

3) 五品=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 다섯 가지의 名位와 등급을 가리키는 말

第六 心統性情圖



[心統性情圖說原文]

林隱程氏曰·『所謂心統性情者，言人稟五行之秀以生，於其秀而五性具焉，於其動而七情出焉。凡所以統會其性情者則心也。故其心寂然不動，爲性，心之體也；感而遂通，爲情，心之用也。張子曰·『心統性情』，斯言當矣。心統性，故仁義禮智爲性，而又有言「仁義之心」者；心統情，故惻隱羞惡辭讓是非爲情，而又有言測隱之心，羞惡辭讓是非之心者。心不統性，則無以致其未發之中，而性易鑿；心不統情，則無以致其中節之和，而情易蕩。學者知此，必先正其心，以養其性而約其情，則學之爲道得矣。』

臣謹按·程子好學論，約其情在正心養性之前，此反居後者，此以心統性情言故也。然究其理而言之，當以程論爲順。○圖有未穩處，稍有更定。

[心統性情圖說譯文]

林隱程氏이르기를 『이른바 心이性情은 統한다는 것은 사람이 五行의 빼어남을 타서 나고 그 빼어난 것에서 五性이 갖추어지고 五性이 動하는 데서 七情이 나온다는 말한 것이다. 무릇 그 性·情을 統會하는 것은 心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寂然不動하여 性이 되니 心의 體요 感而遂通하여 情이 되니 心의 用이다. 張子는 이르기를 「마음은 性·情을 통한다」 하였으니 이 말이 적당하다. 心은 性을 통하므로 仁義禮智를 性이라고 하고 또 「仁義之心」이란 말도 있게 되는 것이며, 心은 情을 통함으로 惻隱·羞惡·辭讓·是非를 정이라 하고 또 「측은지심」, 이니 「羞惡·辭讓·是非之心」이니 하는 말도 있게 되는 것이다. 心이 性을 統하지 못하면 그 未發의 中을 이룰 수(致) 없어서 性이 穿鑿되기 쉽고 心이 情을 統하지 못하면 그 中絶의 和를 이룰 수 없어서 情이 방탕하기 쉽다. 學者는 이것을 알고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 써 그 性을 養하고 그 情을 約하면 학문하는 길을 찾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臣은 생각하옵건대 程子의 好學論은 그 情을 約한다는 말이 正心·養

性의 앞에 있는데 이 글에는 도리어 뒤에 있으니 이것은 心이 性情을 統하는 것으로써 말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 이치를 따라 말하면 마땅히 程子の 論으로써 順理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림에 穩當치 못한 곳이 있어서 약간 고쳤습니다.

[退溪의 說明]

「心統性情」 세 그림의 上圖는 林隱程氏가 그리고 스스로 그 해설을 붙인 것입니다. 그 中·下 두 그림은 臣이 그윽히 聖賢의 立言·垂敎한 뜻을 미루어 생각하여 그린 것입니다. 그 中圖는 氣稟속에 있어서 본연의 性을 指出하여 기품을 섞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子思의 이른바 「天이 命했다」는 性이나 孟子의 이른바 「性善」이란 性이나 程子가 이른바 「性卽理」라는 性이나 張子の 이른바 「天地의 性」이란 性이 다 이것입니다. 그 性을 말함이 이러함으로 그 發하여 情이 되는 것도 또한 그 善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 子思의 이른바 「中節의 情」이라든가 孟子가 이른바 「四端의 情」이라든가 程子가 이른바 「어찌 不善한 情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情이나 朱子の 이른바 「性으로부터 흘러 나온 것은 본래 不善한 情이 없다」한 情이 이것입니다. 그 下圖는 理와 氣의 함으로써 말한 것이니 孔子의 이른바 「性相近」이라한 性, 程子の 이른바 「性卽氣, 氣卽性」이라 한 性, 張子の 이른바 「氣質之性」이라한 性, 朱子の 「이른바 비록 氣속에 있어서도 氣는 氣대로 性은 性대로 서로 섞이지 않는다」하는 性이 이것입니다. 그 性을 말함이 이러하므로 그 發하여 情이 되는 것도 또한 理·氣의 相須·或은 相害하는 點으로써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四端의 情은 理가 發하고 氣가 따르니 본래 純善하고 惡이 없지만 반드시 理가 發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氣에 가리워지면 흘러서 不善으로 되는 것이며 七者의 情은 氣가 發하여 理가 타니 역시 不善함이 없지만 氣가 發한 것이 中絶하지 못하여 그 理를 滅하면 방탕하여 惡이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程夫子의 말씀에 이르기를 「性을 論하면서 氣를 論하지 않으면 不備하고 氣를 論하

면서 性을 論하지 않으면 不明하다 둘로 가르면 잘못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孟子·子思가 다만 理만 가리켜 말한 것은 不備한 것이 아니라 氣를 아울러 말하면 性의 본래 선함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것을 不備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中圖의 뜻입니다. 요컨대 理氣를 兼하고 性·情을 統攝하는 것은 心이요 性이 發하여 情이 될 그 지음(際)은 바로 一心의 幾微요 萬化의 樞要로서 善과 惡이 여기로 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學者는 진실로 능히 持敬에 專一하여 理와 欲에 어둡지 않고 더욱이 이에 삼가서 未發인 때 存養의 功이 깊고 已發인 때 省察의 翫이 익숙해져서 참을 쌓고 오래 힘써 마지 않으면 이른바 「精一·執中」의 聖學과 「存體·應用」의 心法이 다 밖에 구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心統性情圖說明]

上圖는 程復心이 그린 것인데 「心」의 寂然不動한 것이 性이 되고 感而遂通하는 것이 情이 된다고 하여 이 두 文句를 心統性情圈의 左右에 표시하였다. 사람은 五行之氣의 純秀한 것을 타가지고 낫다 해서 心統性情圈 밑에 「稟木之秀」, 「稟火之秀」, 「稟金之秀」, 「稟水之秀」, 「稟土之秀」라고 표시하였다. 心은 또 動靜이 있다. 動한 때는 已發이라 하고 靜한 때는 「未發」이라 한다. 未發한 때는 性으로서 心의 體가 되며 已發한 때는 情으로서 心의 用이 된다. 「性」이란 즉 心속에 갖추어 있는 이치(理)이다. 그것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사랑(愛)의 이치는 「仁」이라 하고 공경(敬)의 이치는 「禮」라 하고 마땅함(宜)의 이치는 「義」라 하고 분별함(別)의 이치는 「智」라 하고 진실함(實)의 이치는 「信」이라 한다. 性이 發하여 情으로 되었을 때는 측은한(惻隱) 마음은 「仁」의 이치에서 發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仁之端」이라 하고 사양하는(辭讓) 마음은 「禮」의 이치에서 發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禮之端」이라 하고 부끄러워(羞)하고 미워(惡)하는 마음은 義의 이치에서 發해 나온 것이라 해서 「義之端」이라 하고 옳다(是) 그르다(非)하는 마음은 智의 이치에서 發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智之端」이라 하고 진실됨(誠實)을

찾는 마음은 信의 이치에서 發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信之端」이라 한다.

中圖와 下圖는 퇴계가 그린 것이다. 中圖나 下圖나 「合理氣·統性情」 「主一身·該萬理」로써 心을 설명한 것은 같다. 그러나 中圖는 氣稟속에 就하여 氣稟과 섞이지 않은 본성만을 가리켜 말하기 때문에 心圈 속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心」·「性」과 「虛靈·知覺」과 「仁·義·禮·智」밖에 없고 下圖는 氣稟속에서 氣稟과 섞기어 있는 氣質之性和 섞이지 않은 本然之性을 동시에 다 말하기 때문에 心圈 속에 표시된 것이 「心」·「性」·「虛靈·知覺」·「仁·義·禮·智·信」 밖에 또 「本然」「氣質」이란 말이 「性」字를 향해서 표시되었고 氣質이 「清·濁·粹·駁」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 차등까지 표시하는 의미에서 또 清·濁·粹·駁 녀字를 氣質에 붙여 표시하였다.

다음 心(或은 性)이 發하여 情이 됨에 있어서도 中圖에서는 純善한 四端의 情 즉 「惻隱·羞惡·辭讓·是非」와 七情-즉 喜·怒·哀·懼·愛·惡·欲-의 선한 一邊만을 묶어 표시하였고 下圖에서는 四端은 純善한 것, 「理發而氣隨之」하는 것이라고 하여 따로 위에 그리고 七情은 善惡을 兼한것, 「氣發而理乘之」하는 것이라 해서 따로 아래에 그려 놓았다.

[退溪가 引用한 朱子の 「人說」原文]

朱子曰: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未發之前, 四德具焉, 而惟仁則包乎四者. 是以涵育渾全, 無所不統;所謂生之性, 愛之理, 仁之體也, 已發之際, 四端著焉, 而惟惻隱則貫乎四端. 是以周流貫徹, 無所不通, 所謂性之情, 愛之發, 仁之用也. 專言則未發是體, 已發是用;偏言則仁是體, 惻隱是用. 公者, 所以體仁. 猶言克己復禮爲仁也. 蓋公則仁, 仁則愛. 孝悌其用也, 而怒其施也, 知覺乃知之事.

又曰:天地之心, 其德有四, 曰:元亨利貞, 而元無不通. 其運行焉, 則爲春夏秋冬之序, 而春生之氣, 無所不通. 故人之爲心, 其德亦有四, 曰:仁義禮智, 而仁無不包. 其發用焉, 則爲愛恭宜別之情, 而惻隱之心, 無所不貫. 蓋仁之爲道, 乃天地生物之心, 卽物而在. 情之未發, 而此體已具;情之既發, 而其用不窮. 誠能體而存之, 則衆善之源, 百行之本, 莫不在是. 此孔門之教, 所以必使學者汲汲於求仁也. 其言有曰:「克己復禮爲仁」, 言能克去己私, 復乎天理, 則此心之體無不在, 此心之用無不行也.

[朱子の 仁說原文譯]

仁이란 天地가 物을 生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그것을 얻어서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 發하기 전에는 四德이 갖추어 있지만 오직 仁만은 네 가지를 다 포괄한다. 그러므로 혼연히 전부를 싸서 길러 統攝아니함이 없다. 이른바 生의 性이니, 愛의 理니, 仁의 體니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미 發했을 때는 四端이 들어나지만 오직 惻隱만은 四端을 관통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루 흘러 관철하여 通치 않는 곳이 없다. 이른바 性의 情이니, 愛의 發이니. 仁의 用이니 하는 것이 이것이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未發은 體요 已發은 用이다. 부분적으로 말하면 仁은 體요 惻隱은 用이다. 公이란 것은 仁을 체험하는 所以이니 「己를 克하여 禮에 復하면 仁이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대개 公하면 仁하고 仁하면 愛한다. 孝悌는 그 用이 되고 怒는 그 施가 되고 知覺은 知의 일이다.

天地의 마음은 그 德이 네 가지 있으니 元·亨·利·貞이라 한다. 그러나 그 運行에는 元이 通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것이 春·夏·秋·冬의 序로 되는데 여기서도 春生의 氣가 通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도 그 德이 네 가지 있으니 仁·義·禮·智라 한다. 그러나 그 發用에는 仁이 包括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것이 發하여 愛·恭·宜·別의 情이 되는데 여기서도 惻隱의 心이 貫通되지 않는 것이 없다. 대개 仁의 道는 天地의 物을 生하는 마음이 物에 卽하여 있어서 情이 發하지 전에 이 體가 이미 갖추어 있고 情이 이미 發하면 그 用이 다함이 없다. 진실로 이것을 체험하여 보존하면 衆善의 源과 百行의 本이 다 여기에 있지 아니함이 없다. 이것이 孔門의 가르침이 반드시 學者로 하여금 仁을 求함에 급급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 말에 「克己復禮爲仁」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私欲을 克去하고 天理에 돌아가면 이 마음의 體가 거기에 있지 않음이 없고 이 마음의 用이 行하지 아니함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以下 略)

[退溪의 說明]

右의 仁說은 朱子が 述하고 스스로 그림을 만든 것이 온데 仁道를 發明하여 남김이 없습니다. 大學傳에 이르기를 「人君이 되어서는 仁에 그친다」고 하였으니 이제 옛 帝王들의 傳心, 體仁의 妙法을 구하려고 하시거든 어찌 이에 뜻을 다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仁說圖說明]

그림이 다섯 부분으로 그려졌다. 첫 부분은 「仁者·天地生物之心·而人之所得以爲心·」을 그린 것인데 거기에 「元亨利貞·便是天地之心·」을 덧붙여 그렸다.

둘째 부분은 「未發之前」과 「已發之際」를 갈라서 「未發之前·四德具焉·而惟仁則包乎四者·是以涵育渾全·無所不統·所謂生之性·愛之理·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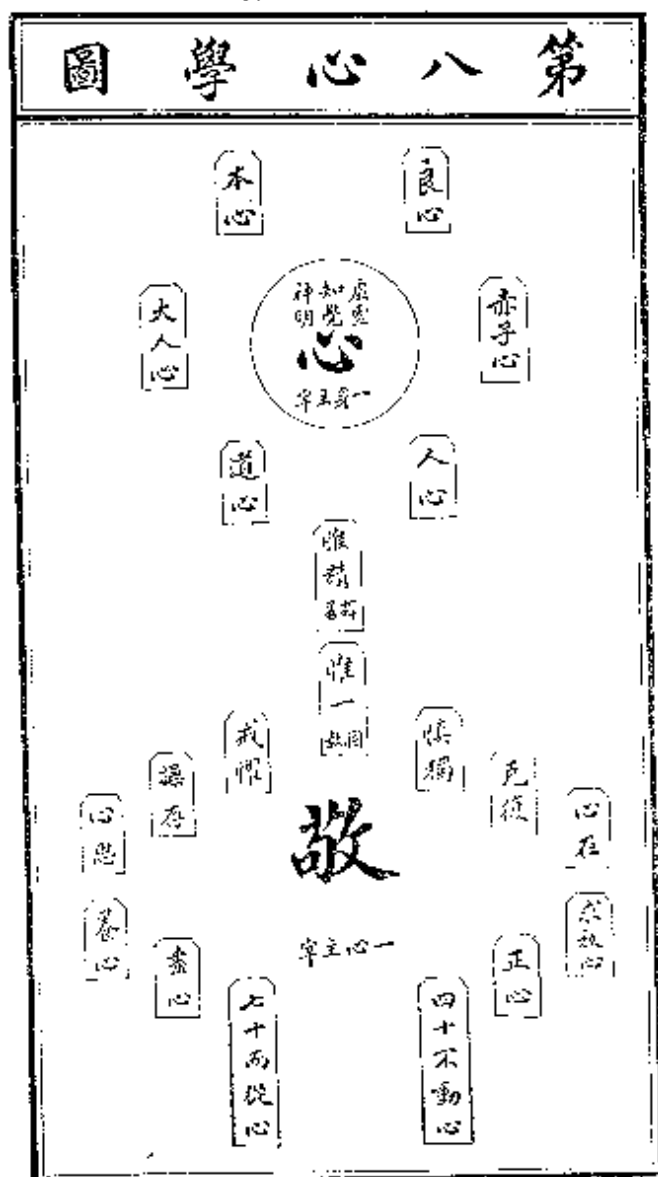
之體也·」를 오른쪽에 그리고 「已發之際·四端著馬·而惟惻隱則貫乎四端·是以周流貫徹·無所不通·所謂性之情·愛之發·仁之用也·」를 왼쪽에 그려 놓았다.

세째 부분은 「專言」·「偏言」을 갈라서 「專言則未發是體·已發是用」을 오른쪽으로 「偏言則仁是體·惻隱是用」을 왼쪽으로 그려 놓았다.

네째 부분은 「公者·所以體仁·猶言克己復禮爲仁·」과 「蓋公則仁·仁則愛·」를 연속해서 그렸고.

다섯째 부분은 「孝悌其用也·而怒其施也·知覺乃知之事·」를 그린 것이다. 이리하여 이 그림에 그려진 것은 「仁說」의 第一段의 뜻을 그림으로 일목요연하게 만든 것에 불과하다.

第八心學圖



[林隱程氏 復心 「心學圖說」原文]

林隱程氏復心 曰:赤子心是人欲未泊之良心, 人心卽覺於欲者, 大人心是義理具足之本心, 道心卽覺於義理者. 此非有兩樣心, 實以生於形氣, 則皆不能無人心;原於性命, 則所以爲道心. 自精一擇執以下, 無非所以過人欲而存天理之工夫也. 慎獨以下, 是遏人欲處工夫, 必至於不動心. 則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可以見其道明德立矣, 戒懼以下, 是存天理處工夫, 必至於從心, 則心卽體, 欲卽用, 體卽道, 用卽義, 聲爲律而身爲度, 可以見不思而得, 不勉而中矣. 要之, 用工之要, 俱不離乎一敬. 蓋心者一身之主宰, 而敬又一心之主宰也. 學者熟究於主一無適之說, 整齊嚴肅之說, 與夫其心收斂常惺惺之說, 則其爲工夫也盡, 而優入於聖域, 亦不難矣.

[林隱程氏 復心 心學圖說原文譯]

「赤子心」은 人欲이 어지럽히지 않은 良心이요 「人心」은 欲에 깨친 것이요 「大人心」은 義理가 具足한 本心이요 「道心」은 의리에 깨친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形氣에 生하면 人心이 없을 수 없고 性命에 근원하면 道心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精一」과 「擇執」¹⁾으로 부터 以下는 人欲을 막고 天理를 보존하는 工夫가 아닌 것이 없다. 「慎獨」 以下는 人欲을 막는 工夫이니 반드시 不動心에 까지 이르러야 富貴가 어지럽히지 못하고 貧賤이 옮기지 못하고 威武가 굴복시키지 못하게 되어 그 道가 밝아지고 德이 확립됨을 알수 있게 된다. 「戒懼」 以下는 天理를 보존하는 工夫이니 반드시 「從心」²⁾에 까지 이르러야 心이 곧 體요 欲이 곧 用이며 體가 곧 道요 用이 곧 義이며 聲이 律이 되고 身이 度가 되어 생각지 않고도 얻고 힘쓰지 않아도 들어맞게 됨을 알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다 하나의 「敬」을 떠나지 못한

1) 擇執=中庸의 「擇善而固執」이란 말을 줄인것.

2) 從心=論語의 「從心所欲不踰矩」란 말을 줄인 것.

다. 대개 心이란 一身의 主宰요 敬은 또 一心의 主宰인 것이다. 學者는 「主一無適」의 說, 「整齊嚴肅」의 說과 「其心收斂・常惺惺」의 說에 대하여 익숙히 深究해 보면 그 工夫가 절로 다(盡)하여 聖人の 경지에 들어감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退溪의 說明]

心學圖는 林隱程氏가 聖賢의 心學을 論한 名言을 주어 모아서 이 그림을 만든 것입니다. 그림에서 類를 나누어서 상대시켜 놓기를 될수록 많이 하여 聖學의 心法이 一端이 아님을 보여주어 모두 힘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위로부터 아래로 배열한 것은 다만 淺・深과 生・熟의 大概로써 말하면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 분이요 그 工程과 절차가 致知・誠意・正心・修身처럼 先後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或은 의심하기를 기왕 大概로써 말한 것이라면 「求放心」은 用工初 시작의 일이니 만큼 「心在」뒤에 놓일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臣은 생각 하옵기를 「求放心」은 알치 말하면 물론 제일 먼저 下手・著脚해야 할 곳이지만 그 깊은 것에 취하여 極言하면 순식간의 一念의 少差도 역시 「放心」이 되는 것이니 顏子도 3개월후에는 仁에 어긋남을 면치 못하였으므로 이것도 「放心」에 關涉된 것입니다. 다만 顏子는 금방 差失이 있자 곧 能히 이것을 알아차리고 알면 곧 다시는 萌作하지 아니하니 역시 求放心의 類입니다. 그러므로 程氏의 그림이 이렇게 叙次한 것입니다. 程氏의 字는 子見이요 新安 사람인데 隱居하여 벼슬을 아니하고 行義가 매우 갖추어 졌습니다. 늙도록 經書를 窮究하여 所得이 깊었고 四書章圖 3권을 저술하였습니다. 元의 仁宗朝에 薦으로써 불려 장차 등용하려고 하였으나 子見이 원하지 않기에 鄉郡博士를 시켰더니 벼슬을 그만두고 鄉里로 돌아 갔습니다. 그 사람됨이 이러하오니 어찌 소견이 없이 함부로 그림을 지었겠습니까?

[心學圖說明]

이 그림은 圖說에 있는 「心」이란 一身의 主宰요 敬은 또 一心의 主宰이다」(心者一身之主宰·而敬又一心之主宰也·)라 한 말을 근거로 하여 一身의 主宰인 心圈과 一心의 主宰인 敬圈을 중심으로 心의 여러 별칭과 敬의 여러 가지 방법적 차별을 그림으로 일목요연하게 표시한 것이다.

心의 별칭을 표시함에 있어서 「良心」과 「本心」을, 「赤子心」과 「大人心」을, 「人心」과 「道心」을 마치 서로 對立시켜 놓은 것 같이 표기하였는데 圖說의 설명을 보면 「이것은 두 가지 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此非有兩樣心)고 하였다. 이제 이 명칭들의 출전을 찾아 보면 「良心」이란 말은 孟子·告子上·牛山之木章에 말한 「雖存乎人者·豈無仁義之心哉·其所以放其良心者·亦猶斧斤之於木也·」에서 나온 것이요 「本心」이란 말은 孟子·朱子上·魚我所欲章에 말한 「此之謂失其本心」이란데서 나온 것이다. 이 두 말의 유래를 찾아 보면 孟子가 「良心」이라 「本心」이라 할때에 실지로 뜻한 것은 「仁義之心」, 「禮義之心」, 「辭讓之心」, 같은 것을 가리켰던 것이니 良心이나 本心이나 다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고 「赤子心」과 「大人心」도 孟子·離婁下에 나오는 「大人者·不失其赤子之心者也·」란 文句에서 유래한 것이니 이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人心과 道心은 書經에서 「人心惟危·道心惟微」라 하여 처음부터 갈라서 말한 것이요 朱子が 또 中庸章句序文에서 「或生於形氣之私·或原於性命之正」이라고 구별을 지었던 것인 만큼 대립시켜 보아도 좋은 것이다.

다음 敬의 방법식에 대한 여러 차등·단계를 표시함에 있어서 그 순서가 「惟精·惟一」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간에 여러 계층을 거쳐 마지막에 「四十不動心·七十而從心」에까지 이르게 한 모양인데 그 중에 설명을 요하는 것은 「克復」, 「心在」, 「操存」, 「心思」같은 용어들이다. 「克復」은 「克己復禮」를 줄인 말이요 「心在」는 大學의 「心不在焉·視而不見·聽而不聞·食而不知其味·」란 말의 「心不在」에 근거한 것이요 「操存」은 孟子의 「操則存·舍則亡·出入無時·英知其鄉·惟心之謂與·」란 말에서 유래한 것이요 「心思」는 맹자의 「心之官則思·思則得之·不思則不

[朱子の「敬齋箴」原文]

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 足容必重, 手容必恭. 擇地而蹈, 折族蟻卦.

出門如賓, 承事如祭. 戰戰兢兢, 罔敢或易. 守口如瓶, 防意如城. 洞洞屬屬, 罔敢或輕.

不東以西, 不南以北. 當事而存, 靡他其適. 弗貳以二, 弗參以三, 惟心惟一, 萬變是監.

從事於斯, 是曰持敬. 動靜弗違, 表裏交正. 須臾有間, 私欲萬端. 不火而熱, 不永而寒.

毫釐有差, 天壤易處. 三綱既淪, 九法亦斲. 於乎小子, 念哉敬哉! 墨卿司戒, 敢告靈臺.

[朱子の 敬齋箴譯文]

그 衣冠을 바로하고 그 瞻視를 높히 하고 潛心하여 거처하면서 上帝를 대해 모시듯 하라. 발짓은 무겁게 하고 손짓은 공손하게 하여 땅을 골라 밟되 개미 뚝에서 구비 돌 듯하라. 門에 나가면 손님 같이 하고 일을 받들면 제사드리듯하여 조심조심 두려워 하여 감히 잠시도 安易하게 말라. 입을 지키기 병마개 막듯하고 잡생각 막기 城門 지키듯하여 성실하고 진실하여 감히 잠시도 경홀히하지 말라. 東으로써 西로 가지 말며 南으로써 北으로 가지 말고¹⁾ 일에 當하여 보존하고 다른 데로 가지 말라. 하나에 둘을 겹치지 말고 둘에 셋을 겹치지 말라²⁾. 마음은 오직 專一하여야 萬가지 변화를 살필 수 있다. 이에 일 삼으면 이것이 敬

1) 「不東以西·不南以北」은 「敬」자의 해석인 「主一無適」의 「無適」을 뜻하는 말이다. 「適」은 「간다」는 뜻이다.

2) 「不貳以二·不參以三」은 「敬」자의 해석인 「主一無適」의 「主一」을 뜻하는 말이다. 「二」와 「三」이라 함은 「一」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요 「貳」와 「參」은 그 「主一」에서 벗어난 경우를 지칭하는 말이니 「一」에서 다른 「一」이 생기면 그것을 「貳」라 하고 二에서 또다른 「一」이 생기면 그것을 「參」이라 한다.

을 지킴이니 動에나 어김 없고 밖이나 안이나 서로 바르게 하라. 잠시라도 틈이 나면 萬가지 私欲이 불길 없이 뜨거워 지고³⁾ 어름 없이 차지나 나라.⁴⁾毫釐라도 틀림 있으면 하늘과 땅이 뒤바뀌고 三綱이 무너지고 九法⁵⁾이 퇴폐한다. 오오! 小子⁶⁾여! 생각하고 조심하라! 먹글로 써서⁷⁾ 경계를 삼아 감히 靈臺⁸⁾에 곱하노라.

[退溪의 說明]

敬齋箴題下에 朱子가 自叙하여 말하기를 「張敬夫¹⁾의 主一箴을 읽고 그 남은 뜻을 주워 모아서 敬齋箴을 지어 齋室壁에 써붙이고 스스로 경계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이것은 敬의 目說²⁾로서 여러 地頭³⁾로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臣은 생각하옵기를 「地頭」란 말이 실지 工夫에 있어서 좋은 의거가 된다고 하였사온대 金華의 王魯齋栢⁴⁾이 「地頭」를 배열하여 이 그림을 그려서 이처럼 명백하고 짜임새 있게 하여 다 落著되는 바 있도록 하였으니 마땅히 日用之際의 心目之間에 있어서 體玩⁵⁾하고 警省하여 얻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敬이 聖學의 始와 終이 된다는 말이 어찌 참말이 아니겠습니까!

3) 「不火而熟」은 焦怒하는 熱火를 묘사하는 말.

4) 「不永而寒」은 憂懼·戰慄을 묘사하는 말.

5) 「九法」=洪範九疇라 하는 九疇를 말하는 것.

6) 小子=나이 젊고 학문·도덕이 아직 미숙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

7) 「黑卿」=「먹」을 擬人化하여 부르는 말이다. 卿은 「卿相」·「客卿」의 「卿」과 같은 뜻이다.

8) 「靈臺」=心靈, 마음

1) 「張敬夫」=이름은 栢, 號는 南軒, 敬夫는 字인데 또 欽夫라고도 한다. 朱子가 매우 尊敬하는 벗이다.

2) 目說=未詳하다. 條目에 설명이란 말로 풀이 해 볼 수 있겠으나 억지 풀이 같다.

3) 地頭=地步, 立場이란 말과 같은 뜻.

4) 王魯齋=宋, 金華人, 字는 會之, 號는 처음 長嘯라 했다가 나이 三十이 넘어서 論語通旨를 짓고 단식해 말하기를 長嘯는 聖門의 持敬하는 도리가 아니라하여 드디어 魯齋로 고쳤다. 朱子의 門人과 從遊하여 諡는 文憲이라 한다.

5) 體玩=體驗하여 玩味에 본다는 뜻.

[敬齋箴圖의 說明]

그림이 중앙에 心圈을 그려 놓고 箴文의 四十個 구절을 上·中·下와 右·中·左로 갈라서 서로 연결을 짓도록 巧妙하게 배치해 놓았다. 이제 그 배치한 구조를 보면 상단 우측에 「正其衣冠」으로부터 「對越上帝」까지를 「靜」으로 표시하고 「足容必重」으로부터 「折族蟻卦」까지를 「動」으로 표시하고 상단 좌측에 「出門如賓」으로부터 「罔敢或易」까지를 「表」로 표시하고 「守口如瓶」으로부터 「罔敢或輕」까지를 「裏」로 표시하였다.

中段 우측에 「不東以西」로부터 「靡他其適」까지를 「無適」으로 표시하고 중단 좌측에 「弗貳以二」로부터 「萬變是監」까지를 「主一」로 표시했고

하단 우측에 「須臾有間」으로부터 「不永而寒」까지를 「有閒」에 귀속시키고 하단 좌측에 「毫釐有差」로부터 「九法亦斲」까지를 「有差」에 귀속시켰다.

그리고 箴文의 第 25·26의 구절인 「從事於斯·是曰持敬」은 중앙의 心圈위에 표기하고 第 27·28의 구절인 「動靜弗違·表裏交正」은 좌우측과 좌상측에 각각 圈內에 기입한 뒤 이것을 心圈과 연결시켜 놓았으며 箴文의 맨 끝 부분인 「於乎小子·念哉敬哉·墨卿司戒·敢告靈臺」는 중앙 圈아래에 표기하였다.

第十 夙興夜寐圖



「夙興夜寐箴」¹⁾ 原文

鷄鳴而寤, 思慮漸馳. 蓋於其間, 澹以整之. 或省舊愆, 或紬新得. 次第條理, 瞭然默識. 本既立矣, 味爽乃興. 盥櫛衣冠, 端坐斂形, 提掇此心, 皦如出日. 嚴肅整齊, 虛明靜一. 乃啓方冊, 對越聖賢. 夫子在坐, 顏曾後先. 聖師所言, 親切敬聽. 弟子問辨, 反覆參訂. 事至斯應, 則驗于爲. 明命赫然. 常日在之. 事應既已, 我則如故. 方寸湛然, 凝神息慮. 動靜循環, 惟心是監. 靜存動察, 勿貳勿參. 讀書之餘, 間以游泳. 發舒精神, 休養情性. 日暮人倦, 昏氣易乘. 齋莊整齊, 振拔精明. 夜久斯寢, 齊手斂足. 不作思惟, 心神歸宿. 養以夜氣, 貞則復元. 念茲在茲, 日夕乾乾.

[夙興夜寐箴譯文]

닭이 울며 깨어나면 생각이 차츰 달리기 시작한다. 어찌 그 사이에서澹然히 整飭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혹은 지난 허물 되 살피고 혹은 새로 얻은 것을 뽑아내어 차례로 조리를 세워 또렷하게 묵묵히 알지이다. 근본이 섰으면 이른 새벽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도 衣冠 차리고 단정히 앉아 몸을 거둔다. 이 마음 거뒀 잡으나 환하게 해 뜬 것 같다. 엄숙하고 정제(整齊)하고 虛明라고 靜—²⁾하다. 이에 冊을 펴고 성현을 대해 모신다. 夫子³⁾께서 자리에 계시고 顏子] 曾子가 앞뒤로 서 있다. 聖師의 말씀한 것 親切히 경청하고 弟子의 묻는 말을 다시 참고해 바로 잡으라. 일이 생겨 이에 응하면 행위에 징험하라. 하나님의 밝은 命이 환하게 항상 눈에 보이도다. 事物應接이 끝나면 나는 도로 나대로다. 마음 속이 고요하니 정신을 모으고 생각을 쉬이도다. 動과 靜은 들고 돌아 마음만이 이를 살핀다. 靜할 때엔 보존하고 動할 때엔 살피어 들·셋으로 오가지 말라⁴⁾. 글 읽고 남은 틈에 간간이 優悠히 함양하여

1) 夙興夜寐箴의 저자 陳柏의 호는 南塘이요, 字는 茂卿이다.

2) 筓子の 解蔽篇에 心의 성질을 설명하여 「虛一而靜」라고 하였다. 虛하고 一하고 靜한 것이 心의 본성이다.

3) 夫子=孔子를 말함.

정신을 놓아 펴고 성정을 쉬워 養하라. 해 저물고 사람이 고닿으면 흐린 기운 틈타기 쉬우니 장중하게 가다듬어 精明을 떨칠지라. 밤이 깊어 잠에 들되 손 마주 쥐고 발을 거두라.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心神을 잠으로 돌아가게 하라. 夜氣⁵⁾로써 養하고 貞固하면 元으로 돌아간다⁶⁾. 생각은 언제나 여기에 있어 낮이나 밤이나 쉽이 없도다⁷⁾.

[退溪의 說明]

夙興夜寐箴은 南塘 陳茂卿 柏이 지어서 스스로 경계한 것입니다. 金華 王魯齋가 일찍 公州의 上蔡書院에서 教授를 맡아 볼 때 오로지 이箴으로써 교재를 삼아 학자로 하여금 사람마다 誦習·奉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삼가 魯齋의 敬齋箴圖를 모방하여 이 그림을 만들어 그의 그림과 상대되게 하였습니다. 대개 敬齋箴은 여러가지 工夫하는 地頭가 있으므로 그 地頭에 따라 배열하여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대저 道가 日用사이에 유행함은 간데마다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理가 없는 곳이란 한군데도 없는 것이니 어느 곳에선들 工夫를 輟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사이도 정지할 수 없으므로 순식간도 理가 없는 때가 없으니 어느 때인들 工夫를 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子思가 가로되 「道란

-
- 4) 「勿貳勿參」=敬齋箴에서 말한 「不貳以二·不參以三」의 뜻과 같다. 즉 「主一無適」을 뜻하는 말이다.
- 5) 「夜氣」=孟子牛山之木章에 「夜氣不足以存」이라고 있다. 밤새 자라는 기운이란 말인데 낮에 物欲에 埋沒되었던 양심이 밤새에 다시 蘇生해 나는 것을 가리킨 말이다.
- 6) 「貞則復元」=元亨利貞을 春夏秋冬에 배치하면 春은 元이요 夏는 亨이요 秋는 利요 冬은 貞이 되고 이것을 一晝夜에 배속시키면 子時後半부터 丑·寅·卯時까지는 元이요 卯時후반부터 辰·巳·午時까지는 亨이요 午時후반부터 未·申·酉時까지는 利요 酉時후반부터 戌·亥·子時까지는 貞이다. 「貞則復元」이란 말은 子正이 지나면 다시 새 날이 된다는 뜻인데 倫理的으로 풀이하여 貞을 貞固로 周易에서 풀이한다.
- 7) 「日夕乾乾」=이 乾은 周易 乾卦의 乾을 말하는 것이다. 乾卦·九三爻辭에 「君子終日乾乾·夕惕若厲·無咎」라고 있다. 乾乾은 쉬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것은 잠시도 떠나지 못한다. 떠날 수 있으면 道가 아니다. 그러므로 君子는 그 보지 못하는 데서 삼가고 듣지 못하는 데서 두려워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숨은 것에서 더 보이는 것이 없으며 은미한 것에서 더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君子는 그 홀로를 삼간다」고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一動一靜 어느 것이나 곳에 따라 때에 따라 存養하고 성찰하여 그 功夫를 힘쓰게 하는 법입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어느 地頭에서나 毫釐의 差失도 없을 것이요 어느 시점에서나 一瞬의 中斷도 없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써 並進하면 聖人되는 요령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다섯 그림은 心性에 근원한 것으로서 要는 日用에 힘쓰고 敬畏를 높이고져 한 것입니다.